

「BHQ」의 서문, 부호와 약자, 용어 정의와 해설 번역

민영진*

차례

서문

히브리어 본문
마소라 주기
본문비평장치
지면 편집
M의 본문과 마소라 주기
감사

부호와 약자

증거 본문 기호
본문비평장치에 사용된 부호
약자

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약자 유형별 분류

유형별 성격규명

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약자 알파벳 순서 목록

소마소라에 사용된 용어 해설

* 대한성서공회 부총무, 성경원문연구소 소장, 구약학

서문

라이프치히에서 히브리어 성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이하 BH) 첫 판(BH1)이 나온 것은 20세기가 밝아오던 1906년이었다. 그 후 한 세기 동안 BH의 새로운 개정 편집이 줄곧 나오기는 했으나, 본문비평학에서 확인된 것만이 첨가되었을 뿐 기본적인 편집 골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1913년에, 역시 라이프치히에서 출판된 제2판(BH2)은, 초판을 극히 부분적으로 개정한 것에 불과하였다. BHK 혹은 BH3라고 부르는 제3판은 슈투트가르트에서 1929-1937년 사이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전 것에 비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기초 본문으로, 그 때까지 사용한 야콥 벤 하임의 1524-1525 뫼베르크 판을 버리고, 레닌그라드 코텍스의 히브리어 본문으로 기초 본문을 대치하였으며, 본문비평장치 역시 철저하게 다시 썼다. 제 4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30년 후였다. 제4판은 이름부터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트텐시아」라고 바꾸었다(BHS, 1967-1977). 기초 본문은 BHK를 따라 레닌그라드 코텍스의 히브리어 본문을 사용하였으나, 사본의 마소라 부호와 본문비평장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이제 한 세기가 마감되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최근의 사본 발견, 특히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과 함께, 지난 수십 년 동안, 히브리어 성서의 본문 전달 과정에 관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탐구가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연구와 함께 본문비평의 목적과 한계에 관한 새로운 이해가 증대되면서, BH의 새로운 편집(제5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편집이 바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퀴타」(BHQ)이다. 히브리어 성서 전권(全卷)의 출판에 앞서, 「룻기」 분책(分冊)을 제일 먼저 내놓는 것을 계기로 삼아, 이 새로운 편집이 그 이전의 다른 편집에 비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개략적으로나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새 편집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주선하여 기획하였고, 독일성서공회가 후원하여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도 독일성서공회는 BH를 위시하여 여러 종류의 학문용 성서를 편집해 오는 일에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 온 바 있다. BHQ의 성격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 배후에는 두 역사의 줄기가 있다. 하나는, BH의 편집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히브리어 구약성서 본문 프로젝트」 역사이다.

BH가 새로운 판으로 거듭 날 때마다 매 발전 단계에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첫 판부터 최근 판에 이르기까지, 특유의 성격을 형성해 왔는데, 그러한 특성은 현재의 제5판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BH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편집

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중형판(中型版 Handausgabe)을 계속하여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기초 본문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루돌프 키텔이 명확하게 밝히고 결정한 대로, 절충본문을 신지 아니하고, 단일 편집 혹은 단일 사본의 히브리어 본문을 기초 본문으로 인쇄하였으며, 주석과 번역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이독(異讀)이나 추측하여 수정한 본문은 본문비평장치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제시해 놓았다. 처음 두 판에서는 야곱 벤 하임의 봄베르크 판을 기초 본문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삼판(1937년)부터는, 파울 칼레의 주선으로,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 러시아국립도서관 (전 살티코브-시체드린 국공립도서관) 제2 피르코비치 컬렉션의 B19a (이하 M^L) 코덱스 형 사본에 실린 히브리어 본문을 기초 본문으로 인쇄하였다. 칼레는 BH가 히브리어 본문 외에 M^L의 소마소라 주기와 대마소라 주기를 BH에 함께 편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강조했다. 그리하여, 3판부터 소마소라 주기를 BH에 실리게 되었었다. 그리고, 제한된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BH의 4판인 BHS부터는 대마소라 주기를 함께 편집하였다. 또 1940년대 말부터 사해사본이 공개되기 시작하였으므로 BHK 7쇄(刷)부터는 오토 아이스펠트의 주선으로 1QIsa^a와 1QpHab에 나타난 이독을 본문비평장치에 반영시키기도 하였다. BHQ가 비록 기존의 본문비평장치의 내용을 새롭게 갱신하기도 하고 새로 다듬기도 하였지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러한 원칙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BHQ 역시 이전의 BH처럼 반드시 본문비평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자와 목회자와 번역자와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형판으로 편집하였다. 그러나 이 분야에 아직까지 본격비평판(editio critica maior)이 없는 만큼, 본문비평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편집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쓸모가 있도록 편집하였다. 이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면서 편집위원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비평적 편집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그러한 대규모의 본격적 비평본의 실용성에도 의문이 없지 않았던 데다가, BH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일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다만 편집위원들로서는 이 새로운 BH의 편집이 언젠가는 본격비평판의 출판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큰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전의 여러 차례의 편집이 보여준 전통을 따라서, 이번에도 BHQ는 완결판 출판에 앞서 낱권을 먼저 선보인다. 그 첫 번째 낱권으로 「메길롯」에 속한 다섯 권의 책을 먼저 출판한다. 각 낱권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는다.

- 서론
- 부호와 약자 목록

- M^L의 히브리어 본문과 마소라 주기
- 본문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이독을 보여주는 본문비평장치
- 본문비평장치에 언급된 요소 중에서 더 확대할 내용과, 대마소라의 영어 번역과, 대마소라와 소마소라 중에서 난해한 부분에 대한 설명 등이 보충되어 있는 별 권 「주석」

마지막에 가서, BHQ의 완결판은 두 권으로 출판될 것이다. 한 권은, 그 동안 우리가 보아 온 것처럼, 서론과 부호 및 약자 목록과 히브리어 본문과 마소라 주기와 본문비평장치가 포함된 것(BH의 편집 형태를 따른 단 권)이고, 다른 한 권은 본문비평과 관련된 해설과 대마소라의 영어 번역이 들어 있는 「주석」이다.

BH의 이 세 편집은, 우수한 단일 마소라 사본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한 것이 라던가, 기초 본문과 다른 여러 형태의 이독을 증거 본문과 함께 제시하는 본문비평장치를 첨가시킨 것 등, 편집 형태는, 1937년 판에서 확정된 편집 형태를 그대로 따른다. 이러한 구조는 이미 키텔이 결정한 1906년판의 구조를 답습한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사용된 히브리어 기초 본문이 그 때는 단일 마소라 사본이 아니고 뫼베르크 본문이었다는 점이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신약성서 본문비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절충본문”이라고 적절하게 부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단일 본문 전송을 반영하는 하나의 사본 본문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최근의 논의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이유에서 전통적인 편집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첫째, 아직 우리는, 한 절충 본문을 재구성할 만큼, 히브리어 본문 발달사에 있어서나, 다양한 본문 전송에 관하여서, 어떤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 둘째, 히브리어 성서의 절충본문을 제시하는 그런 편집은 본문 발달 과정에서 어느 특수한 한 시점의 본문을 재구성하는 길을 반드시 선택하기 마련인데, 그러한 본문 재구성이 목표로 하는 적절한 본문 발달 단계에 관한 일치된 의견이 결여되어 있는 이 마당에, 아직도 논의 중인 어느 한 주관적인 의견을 따라 히브리어 본문을 재구성하여 성서학도들이나 일반 비전문 독자들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 위원회는, 절충본문은 반드시 현존하는 모든 증거 본문 사이의 이독을 모두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방대한 이독의 제시는 단 권으로 출판되는 현재의 편집 분량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히브리어 본문

1937년의 3판에서 쇄(刷)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줄곧 견지되어 왔고, BHS에서 한 번 더 다듬어진 전례에 따라, 이 새로운 편집은 그 기초 본문으로 M^L 의 원문을, 교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였다. M^L 과 거기에 있는 마소라 주기(註記)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M^L 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점에 있어서든, 결코 이상(理想)적일 수만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아래에서 재론 됨). 사실, 위원회에서는 다른 본문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할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다. 알렉포 코텍스 (이하 M^A)의 본문을 사용해 볼 생각을 안한 것도 아니었으나, 무엇보다도 그것이 구약전서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적인 사본이어서 결국은 그것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결정을 보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대학교 성서 프로젝트가 이 사본을, 방대하고 본격적인 비평본인 「히브리대학성서」의 기초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코헨이 편집한 바르일란 대학교 히브리어 성서 역시 그 기초 본문으로 M^A 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등이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본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편집위원회에서는 각각 따로따로 흩어진 히브리어 구약성서의 세 부분, 곧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의 사본으로서 최초의 벤 아세르 사본으로 알려진 사본들을 BHQ의 기초 본문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시도를 포기하고 기존의 M^L 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M^L 이 히브리어 구약성서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있는 완전한 한 벌 사본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사본들 사이의 격차를 다른 사본으로 메워서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 (즉 알렉포 코텍스를 사용한다고 할 때, 율법서에 부분적으로 파손된 공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이고, 이것 외에도, 성문서 즉 케투빔이 전부 빠져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어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본들의 상태가 다 단편적인 것이므로 결국은 기워 맞추기 식의 본문을 재구성해 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이 새로운 편집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판 작업을 한다고 할 경우, 이미 독일성서공회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수십 차례 수정을 거듭하여 이제 거의 완벽하게 수정된 조판 원고를 가지고 있는 터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지만, 새로운 사본을 기초 본문으로 다시 조판 작업을 하게 된다면, 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라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BHQ 편집을 위해 히브리어 본문을 모두 컴퓨터에 입력하기로 결정한 마당에서, 티베리아 사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본인 M^L 이 이미 전자(電子) 본문으로 입력되어 있었으므로 달리 더 다른 사본을

고려하기가 어려웠다. 현재의 비평적 편집을 만드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히브리어 본문을 구체적인 전자 형태로 전환시키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초기에 전자 본문 안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종류의 오류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클래어몬트의 고대성서 사본센터 (the Ancient Biblical Manuscript Center in Claremont, California, USA)에서 입수한 컬러 투명 필름으로 그런 오류를 다 고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가 있었다. 이 투명 필름은 로스앤젤레스 서부셈어연구소가 구성한 고대성서 사본센터 팀이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직접 촬영한 레닌그라드 사본(M^L)으로 만든 것이다. 이 사진은 투명성이나 질에 있어서 기왕에 찍었던 다른 사진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것이다. BHS 5쇄(1997)에서도 미처 고치지 못한 오류들을 앞으로 이 투명 필름으로 더 고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레닌그라드 사본(M^L) 전자 본문 역시 이 새로운 사진판에 의거하여 철저히 검토될 것이다. 히브리어 성서 날권의 편집자가 하는 것 말고도 별도로 학술적인 공편자(共編者)들을 선정하여 이 임무만 맡게 할 것이다.

BH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HQ의 경우에도 M^L 본문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하였다. 사본 자체의 오류도 기초 본문에 그대로 재생하였다. 다만 오류가 분명하여, 티베리아 계통의 다른 사본에 의거하여 교정한 경우에는, 그 교정 내용은 기초 본문에 실지 않고 해당 본문비평장치에 실었다. 이 밖에도, M^L의 새 사진판에도 곳에 따라 사본에 파손된 곳이 있어서 읽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음 부호나 억양 부호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편집자들이 본문을 재구성하여 기초 본문에 반영시키고, 문제가 되는 곳에서 M^L 사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것처럼 본문을 회복하는 근거로서 어떤 티베리아 계통의 증거 사본을 사용하였는지, 그 교정 배경을 해당 본문비평장치에서 밝힌다는 원칙을 세웠다. M^L 사본이 최초의 필사자의 기록과 그 이후의 교정자가 잘못 고친 것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다. (교정자가 잘못 고친 것이라는 것은, 사본에서 흐리게 지워진 부분을 다른 사람이 진하게 잉크로 덮어쓰는 과정에서 잘못 쓴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더 언급됨]). 이런 여러 경우에 편집자는 사본의 타당한 읽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된 읽기를 기초 본문에 넣고, 그 관련 자료는 본문비평장치에 실는 원칙을 취하였다.

편집 양식에 있어서 BHQ는 그 이전까지 나왔던 BH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M^L의 페이지 레이아웃을 사본에 있는 그대로 재생시키는 방법은 피하였다. BH에서는 편집자는 산문이라고 판단되는 본문은 단일 난으로 편집하고, 시문이라고 판단되는 본문은 시 형태로 행을 나누어 편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BH

가 시문에서 행을 나누는 기준은 늘 바뀌어 왔다. 산문 본문 안에 시문이 들어 있는 경우, M^L은 전통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편집 방법에 따라, 시문을 시 형식으로 행을 나누어 기록하였는데, BHQ는 이 경우에 M^L의 시 형태 기록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원칙을 지켰다. 그 밖의 경우에는, 현재의 편집은 시문을 시 형태로 행을 나눌 때 마소라 억양을 따라 행을 구분하였다. 시문의 행 구분은 언제나 첫 분리 억양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상이한 구문 구분이 분리 억양에 표현된 것에 비해 더 바람직한 독법으로 판정된 것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그런 경우에는 더 바람직한 그 독법에 따라 행 구분을 하였다. 행 구분이 두 줄로 혹은 석 줄로 구분되는 경우는 억양부호들 사이에서 등급별 우선순위에 따라 그렇게 하였다. 때로는 한 행의 줄이 길어서 쪽의 끝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의적 평행법 (*parallelismus membrorum*)을 살려서 행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줄 혹은 석 줄로 행 구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소라 사본과 관련된 다른 특수 현상들 (곧 확대되어 쓰여진 글자, 어깨 위의 첨자, 독본 부분의 각종 부호들, 반전된 눈[inverted nunim])은 M^L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재현시켰다. 이것은 1937년이래 BH의 전통이다. 그러나 서투모트(*sətumôt*)와 퍼투호트(*pətuḥôt*)는 빈 행에 표시하지 않고, ◻와 ◻를 삽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것은 BH 출판의 초창기부터 지켜온 전통이다.

마소라 주기

BH 3판 서언에서 칼레는 M^L 본문에 마소라 주기가 첨가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Vollständig wird dieser Text erst durch die ihm beigegebene Masora”(p.viii)고 지적하면서 BH에다가 M^L의 전체 마소라 주기를 출판해야 할 목적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다. 그 결과, 마침내, 1937년 판에서 소마소라 주기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BHS는 칼레가 의도했던 대로 소마소리와 대마소라 주기를 둘 다 출판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BHS를 위해서 바일이 별도로 편집 출판한 M^L의 마소라 주기는 M^L의 마소라 주기를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펴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고치고 다듬어서 출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과는 달리, BHQ의 편집위원회에서는 M^L의 소마소리와 대마소라를 둘 다 사본에 있는 그대로 재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마소라 주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BHQ의 기초 본문을 구성하는 M^L 본문의 일부인데다가, 또 그것을 재생시키는 경우, 사본에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재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마소라 주기를 다른 형태로 제시한다는 것은 위원회로서는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M^L의 대마소라와 소마소라 자체가 결함을 지니고 있고, 더욱이 마소라 전통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하는 편집이었던 만큼, 편집자들은, 완전한 마소라 주기를 다 포함한 편집을 하려 할 경우 다른 사본에 있는 마소라 주기를 모두 수집해야 한다는 것과, 한 권으로 편집되어 나오는 현재와 같은 분량으로서는 그러한 자료를 다 담을 수도 없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M^L의 마소라 주기가 사본의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것을 교정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대로 BHK와 특히 BHS가 지켜온 원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독법은 BHQ의 별 권 「주석」에서 설명을 하였다. 소마소라에 사용된 일반적인 약자 해설은 본 편집의 서론에 포함시켜 독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난해하여 적절하게 번역할 수 없는 소마소라의 주기는, 대마소라의 모든 주기와 함께, 별 권 「주석」에 번역해 놓았다. 번역을 해 놓아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함축적 정보를 지닌 마소라 주기 역시 「주석」에서 다루었다.

M^L의 소마소라 주기 중에는 짝이 없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본문 안에는 소마소라 주기가 있음을 알리는 부호 동그라미가 낱말 위에 표시되어 있으나, 난 외 여백에 거기에 해당하는 주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난 외에 소마소라의 주기는 있으나 본문 안에 그 주기와 관련된 낱말이나 구를 알리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해당 페이지의 본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마소라 주기가 그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도 있다. BHQ는 이러한 사정을 가능한 한 확실하게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해당 주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본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으면, 여기에서도) 본문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삽입해 넣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주기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가까운 지시 대상과 관련시켜 나타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지시 대상에 대한 그릇된 확신은 전달되지 않게 하였다. 동일 페이지 혹은 인접 페이지의 본문 문제와는 도저히 연관시킬 수 없는 대마소라의 주기들은, 사본에서 주기가 지닌 편집상의 위치와 그 특징을 고려하여, 그 주기들이 나타나는 해당 페이지의 첫 단어와 연관시켰다.

본문비평장치

일찍부터 BH는 본문비평장치라는 것을 고안해서, 문제가 있는 본문을 다루

면서도 깡그리 다 다루지 아니하고, 번역과 주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취급한 바가 있는데, 이런 전통은 이번 BHQ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본문비평장치의 내용과 그 제시 방법에 있어서 BHQ는 이전의 어떤 BH와도 같지 아니한 독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본문비평장치가 제 2의 역사에 의해 가장 두드러지게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BHQ의 본문비평장치는 제 2의 역사인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히브리어 구약성서 본문 프로젝트(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다. HOTTP가 시작된 것은 1969년이었다. 위원회는 히브리어 성서학자 여섯 명(도미니크 바르텔레미, 알렉산더 홀스트, 노버트 로핑크, 맥하디, 한스 피터 튀거, 제임스 샌더즈)으로 구성되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유진 나이다가 위원장직을 맡았다. 위원회는 11년 동안 매년 연례적으로 만나서, 본문비평상의 문제를 지닌 약 5,000여 개의 항목을 다루었다. 5천여 개의 항목은, 존 톰슨이 「영어개역표준판 (RSV)」, 「새영어성서(NEB)」, 「예루살렘성서(JB)」, 「루터역 개정판」등을 비교하여, 추려낸 것이다. 중간보고서가 나온 것이 1973년부터 1980년이었다. 당시 위원회 서기였던 아드리안 센커가 그 중간 보고서를 다섯 권으로 편집하여 「서문과 중간보고서 (*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지금은 최종 보고서 일부가 출판되었다. 프리백의 도미니크 바르텔레미가 책임 편집자가 되어, 현재까지 3권으로 출판한 「구약본문비평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이 바로 그것이다. 최종 보고서는 아직 두 권이 더 출판될 예정이다.

이 히브리어 구약성서 본문 프로젝트 위원회는 본문비평의 과제에 독특한 접근을 고안하여 시도하였다. 말하자면, 이 위원회가, 구체적인 본문비평상의 문제와 본문의 문학적 발달사를 분명하게 구분한 것이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외적 증거에 의존하는 본문비평의 고유 영역과 순수하게 내적 증거에 입각하여 수행하는, 다른 학문적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본문 연구의 다른 영역과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정교한 방법을 고안하여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BHQ를 편집함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접근을 본문비평의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HOTTP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학자들 중에서 일곱 사람을 편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였고, 그들이 1990년 8월에 스위스랜드의 프리백 대학에 모여서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일곱 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프리백 대학의 아드리안 센커가 위원장이 되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관례에 따라, 편집 위원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실제 집필자 곧 29명의 프로젝트 실무 팀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하였다. 편집위원회는, 위원회 자체의 작업과 구약 각 권의 본문비평장치 집필

자들의 작업 내용과 세계적으로 널리 유포시켰던 견본 페이지에 대한 반응에 입각하여, BHQ의 개념, 특히 본문비평장치의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다. 이처럼 정립된 개념은 「본문비평장치 집필 규정」 (*Guidelines for the Contributors*)과 계속적으로 첨가된 보충 규정에 잘 나타나 있다.

BHQ 본문비평장치의 기능은, 본문 전달과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 증거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해당 본문들은 고대의 증거 본문들을 철저히 대조하여 조사한 것에 근거하여 선별된 것들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대의 증거 본문들이라 함은, 율법서의 경우 티베리아 계통의 삼대 사본, 예언서와 성문서의 경우 (M^L외에) 티베리아 계통의 이대 사본, 수집 가능한 전-티베리아 히브리어 증거 본문들 (pre-Tiberian witnesses),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독립적 지식을 지닌 흔적을 제시하는 모든 고대의 번역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 본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본문상의 차이들을 선별하여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킬 때 두 가지 선별 기준을 세운 바 있다. 첫째 기준은, 그러한 이독(異讀)이나 이문(異文)이 본문비평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논쟁이 되는 본문이라고 해서 다 BHQ의 기초 본문과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BHQ의 기초 본문과 다른 본문일 때만 선별하여 실었다. 둘째 기준은, 그 이독이나 이문이 잠재적으로 번역이나 주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비평장치에 등록된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조된 증거 본문들이 지니고 있는 증거자료로서의 신빙성을 나타낸다. 실제 본문들이 제시될 때마다, 그 실제 본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는 축약형이 아닌 완전 형태로, 그리고 로마자 음역이 아닌 원어와 원어의 철자로 제시된다. 한 이독이나 이문이 분명하고 간결하게 기술될 수 있는 극소수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술은 바로 그 본문에 우선하여 제시되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고 고대의 번역에만 있는 첨가 요소들이 한 절을 넘거나, 해당 날권의 별도 판에 나올 만큼 (에스더기의 경우처럼)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사실만이 언급될 뿐, 분량이 제한된 편집인만큼, 전체 본문이 제시되지 않는다. 고대의 번역을 히브리어로 되 번역하는 것 [retroversion]은 기초 본문 안에서 발견된 바람직한 본문이라고 제안된 본문에만 제한하였다. 본문비평장치가 본문 전달과 관련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고 평가하는 것에만 관심하기 때문에 가설에 입각하여 재구성된 읽기 (hypothetical reading) 곧 추측하여 재구성한 읽기가 본문비평장치에 들어 간 경우는 BHQ에서는 기존의 읽기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였다.

편집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킬 자료 선정을 위한

두 가지 기준이라는 것이, BH의 기존의 입장과 결별을 선언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세기초의 본문비평 관행과도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기존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주석상의 난제와 같은) 다른 기준에 입각하여 오랫동안 본문비평의 문제로 취급되어 온 추가 사항이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편집자들의 견해로 볼 때는 결코 본문비평의 문제는 아니지만) BHQ의 본문비평장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HQ의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이러한 추가 사항들은 (예를 들면, 문제가 된 읽기가 본문비평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언어학과 관련된 것일 때) 더욱 간략화된 형태를 취하였다.

현재의 편집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킬 자료 선정을 위한 두 가지 일반 원칙 외에, 몇 가지 추가 원칙 (additional principles)이 적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번역이나 주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본문비평장치에 넣어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또 다른 형태의 중요한 문제를 지닌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켜 논의를 하기 위해 추가적인 원칙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케티브와 케레에서 볼 수 있는 이독뿐 아니라, 콤란이나 마사다나 무라바아트 자료와 같은 히브리어 (다니엘서와 에스라기의 경우는 아람어) 증거 자료들에서 나타난 이독들이 순수하게 철자법상의 차이만이 아닐 경우에는 모두 본문비평장치에 넣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오경에서 발견되는 이독들도, 순수하게 언어학과 관련된 것이거나 철자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본문비평장치의 논의에 포함시켰다.

이것과 상응하여, 또 다른 보충 원칙(supplementary principles)을 정하였다. 이 원칙을 정한 까닭은 본문비평장치 안에는 다만 본질적인 것과 입증 가능한 것만을 넣기 위해, 본문비평장치의 내용을 분명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카이로 게니자 자료 중에서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킬 것은, 한 편으로는 관련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한 편으로는 본문비평장치를 읽는 독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실증(實證)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원 후 1,000년 이전 것으로서, 이미 발행된 것으로만 제한하였다. 제2경전/외경, 위경, 콤란 자료, 필로와 요세푸스의 작품, 신약, 타나이트와 아모라 자료, 교부들의 자료 등도 필요할 경우에는 본문비평장치에서 다루었다. 다만 이것들이 배후에 서로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리고 이것들이 특정한 읽기에 이르는 바로 그 통로가 되고, 히브리어 본문 전송에 특수한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에서만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켜 다루었다. 현존하는 이문이나 이독이 번역판에서 기인되는 경우, 그리고

그 이문이나 이독들이 순전히 번역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예를 들면, 번역되는 수용언어에 맞추기 위하여 원문의 어색한 표현을 바꾸거나 문체를 바꿈으로써 생겨난 본문상의 차이), 그리고 본문을 다른 표현으로 달리 쓰거나 설명을 붙임으로써 생겨난 본문상의 차이 등은, 그것들이 이전까지의 논의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아닌 한, 본문비평장치에 넣지 않았다. 이것과 비슷하게, 타르굼 같은 경우(예를 들면, 타르굼의 「아가」의 경우처럼), 한 책 전체가 다른 표현으로 달리 쓰이거나 설교와 교훈으로 첨가된 것이 많은 경우는,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자료와의 대조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계속하여 인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하였다. 이런 것들은 본문비평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편집자들은 그런 것까지 다 본문비평장치에 넣는다는 것은 본문비평장치에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수많은 증거 본문들 중에는, 그것들이 히브리어 대본(臺本 *Vorlage*)을 규칙적으로 반영하는 것일 수 없는 것들이라고 판단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문비평장치에 빈번하게 인용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서, 그것들 중에는 때때로 히브리어 대본에서 유래한 읽기를 보고해 주는 것 같은 것도 있고, 본문비평장치에 들어와 있는 문제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것도 있다. 시로-헉사플라와 그것과 관련된 고대 그리스어 역의 오리겐 수정본에 대한 증거자료들은, 그것들이 고대 그리스어역과도 다르고 MT와도 다른 경우에만 증거 본문으로 인용하였다. 고대 라틴역은 그것이 히브리어 증거와 일치하거나, 거의 틀림없이 독자적 본문에 대한 증거가 되거나, 그리고 어떤 그리스어 사본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일 때만 인용하였다. 오경 사마리아 타르굼과 갈리아 시편과 콥트어 역 등은 체계적으로 대조되지는 않았지만, 개별 편집자들이 유용한 본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인용하였다.

BHQ는 빈번히 증거 본문으로 인용되는 티베리아 사본들의 경우, “씨투모트(*ṣṭmôt*)”와 “피톡호트(*pṭḥôt*)”는 완전하게 대조하였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번역과 주석에 있어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만 본문비평장치 안에 들어갔다. 실제로 이것은, “씨투모트”나 “피톡호트”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 어떤 불일치가 있는 경우만이 본문비평장치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M^L이 가지고 있는 “씨투모트”와 “피톡호트”의 완전 목록과 대조된 티베리아 사본들은 각 권 서론에 들어 있다.

BH의 초기 편집 본들과는 달리, BHQ는, 케니콧과 드로시가 본문비평장치에서 증거 본문으로 인용한 중세 사본들은 인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러한 중세 사본들이 본질적으로 본래의 것이 아니라 파생된 본문이며 마소라는 티베리아

마소라 학자들이 만든 것이라는 모세 곳센 곳스타인의 주의 깊은 논쟁적 견해를 따른 결과이다. 그리하여, 이들 중세 사본들은 티베리아 사본들과는 독립된 증거 본문으로서의 가치를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케니콧과 드로시가 대조한 사본에 관해서는 여러 이독들의 성격규명 단계에서 언급되거나, 혹은 케니콧과 드로시 자료 안에 들어 있는 읽기나 읽기들이, 편집자가 그대로 두고자 하는 전승된 본문에 대한 태도나 자세에 관해 증거를 제공할 때는 케니콧과 드로시의 대조를 언급하였다.

사해 두루마리와 시리아어역 페시타를 다룸에 있어서, 그리고 범위가 좁기는 하겠지만 칠십인역과 불가타역을 다룸에 있어서, BHQ는 이전의 어떤 편집과도 상이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사해 두루마리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본들이 정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출판될 수 있었기 때문에, BHQ의 본문비평장치는 현존하는 사해 사본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처 출판되지 않은 것까지도 미리 참고할 수 있었던 배려에 대하여 사본 소유 기관에 대하여 감사하는 바이다. 페시타의 경우는, 라이덴 페시타 프로젝트 작업이 그 동안 아주 훌륭한 총서를 출판해 내고 있고, 아직 출판되지 않은 것은, 그 원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여기 BHQ의 본문비평장치에 인용된 페시타 증거 자료들은, BHK나 BHS가 참고했던 옛날 편집 본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라, 우수한 초기 사본들에서 인용된 것들이다. 칠십인역의 경우는, 어떤 것은 BHS처럼 괴팅겐 셉투아진트 총서(叢書)를 사용했지만, 그 후에 최근까지 그 총서에 속한 다른 책들이 속속 출판되어 BHS가 미처 참고하지 못한 귀중한 자료를 참으로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그것을 편집 출판하는 연구소에서는 아직 출판되지 않은 것은 그 원고를 BHQ 편집자들이 참고하여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불가타의 경우, BHK나 BHS는 산 기롤라모 판의 초창기 출판물만을 참고할 수 있었지만 BHQ는 그 불가타 판이 이제 곧 완결되어 출판될 것이므로 그것들을 다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BHQ의 본문비평장치는 본문 전달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기초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한 읽기가 기초 본문에 들어 있는 읽기보다 더 바람직한 읽기일 때는, 제시된 바로 그 증거 자료들을 평가하여 그러한 사실을 식별하는 것도 본문비평장치의 주요 목적이다. 그리하여 본문비평장치는, 때때로, 기초 본문에서 발견되는 읽기가 아닌, 증거 본문의 다른 읽기가 더 바람직한 읽기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본문비평장치가 그러한 판단을 내릴 때는 거기에 주관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 이미 자주 지적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는 본문비평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가, 기존의 이독들 중에서 더 좋은 읽기를 제안하는 본문비평장치에서 제거될 수 없는 것이므로, 편집자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본문비평장치가 가능한 한 객관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이독들의 성격규명을 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판단이 합리적인 확실성과 투명성을 지닌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기로 결정하였다. 본문비평장치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다 논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 권의 「주석」에서 자신들의 판단 그 근거를 더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편집자가 가지고 있는 기초 본문의 한 읽기보다 다른 증거 본문의 읽기가 더 바른 읽기라고 판단되는 확실성과 투명성을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문비평장치 자체 안에서도 약자를 사용하여 이독이나 이문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약자”를 볼 것) 본문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BHQ 자체가 본문비평장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한 편집 목적은 바로 “유용한 증거에 근거하여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초기의 본문 형태를 (the earliest attainable forms of the text based on the available evidence)”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목표를, 고대의 증거 본문들의 증거를 제시하고 평가하는 본문비평장치의 핵심적 성격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다. 본문 증거를 제시하고 평가하는 본문비평장치의 이러한 이중 역할은 문제의 본문을 제시하는 본문비평장치의 이중 구조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각 증거 본문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편집자들은 본문 전달 과정에 대한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편집자들은, 본문 전달 과정이 기계적인 것만이 아니라, 본문이라는 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필사자들이나 번역자들이 속했던 그 공동체에 따라 본문의 의미가 영향을 받으면서 전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비평가는, 한 편으로는 사본 제작의 기계적인 측면에서 유래하는 변화의 종류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본문에 할당된 의미의 연계 안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번역판에 나타난 증거들을 다룰 때에는, 편집자들은, 이 증거들을, 뚜렷한 각 번역 단위의 구조 속에서, 번역 기술과 번역의 특징과 히브리어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번역의 특징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고려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편집자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독자들 혹은 본문 전달의 다른 국면을 연구하고 있는 독자들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들의 결론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본문에서 인용된 표제어 (lemma)를 따라, 본문비평장치에 올라 있는 각 표제어에서 편집자들은, 대조한 증거 본문들 사이의 동일한 혹은 상이한 읽기

를, 그리고 증거 본문들 사이의 계열을 제시한다. 본문비평장치에 올라 있는 표제어들은 일정한 구조로 배열된다. 기초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낱말이나 구가 표제어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것과 다른 읽기들이 제시된다. 그리고 각 읽기-표제어든 이독이든- 다음에는 그 읽기를 지원하는 증거 본문들의 부호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한 이독에 대한 주요 증거 본문이 제시된다. 연속으로 제시된 이독들 중에서는 첫째 이독이 본문비평의 문제를 발생시킨 읽기이다. 나머지 이독들의 (그 이독이 유래한 증거 본문과 함께) 배열은 언어 배열순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기타)에 근거하여 배열하고, 같은 언어 자료는 개략적인 연대순에 따라 배열하였다. 두 개의 이독이 단일 본문비평의 표제어가 될 때에는 그것을 다른 이독들보다 앞세웠고, 두 이독의 배열 순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어학적-연대적 연계를 따랐다. 주어진 한 읽기가 2차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 (기초 본문에서 나온 표제어까지 포함하여), 그리고 편집자가 그 읽기의 성격규명 약자를 표시하는 것이 독자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표현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그러한 성격규명 표시를 그 증거 본문을 표시하는 부호와 함께 약자로 표시하여 주었다. 읽기와 문제 본문의 성격규명은 일반적으로 더 바람직한 읽기에 붙어 있다. 한 읽기가 다른 읽기와 관련하여 성격규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더 바람직한 읽기가 아닌 경우에는, 성격규명을 위한 참조점을 제공하는 그 읽기 부호들은 바로 그 성격규명에 붙게 된다. 이 본문비평장치에서 한 번역판의 읽기를 이독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히브리어 본문 쪽에서 발생한 것인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이러한 질문은 항상 열려 있는 질문으로 남게 된다. 그리하여 더러는 번역본 읽기의 성격규명은 그 성격규명이 어느 쪽 (히브리어 본문 쪽? 혹은 번역 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표시되기도 한다. (“heb”라고 표시하면 히브리어 대본 쪽을 가리키는 것이고, “vrs”/“vrss”는 번역본 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증거 본문들이 기초 본문과는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가리키는 경우, 본문비평장치의 강조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어, 증거 본문들의 배열은 그 가능한 히브리어 본문 쪽을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같은 한 낱말의 두 유사어를 제공하는 두 개의 그리스어 증거 본문은, 편집자가 그 두 증거 본문이 비록 서로 다른 그리스어 대응어이지만 같은 한 히브리어를 반영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때 배열된다.

편집자가 기초 본문에 있는 읽기 외에 다른 읽기를 더 바람직한 읽기로 제안하는 경우는 그것을 표제어 설명 결론 부분에 놓고 그 앞에 세로 겹줄(∥)을 놓아 그것이 편집자의 제안임을 밝혔고, 뒤이어서는 약자 “pref”를 표기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읽기(preferred reading)”임을 밝혔다. 그 바람직한 읽기를 지원

하는 증거는 되풀이하여 표기해 놓았다. 만일 그 바람직한 읽기를 기존의 어떤 증거 본문도 직접적으로 입증해 주지 않고 다만 그 증거가 내포되어 있기만 하다면, 거기에는 “(origin)”이라는 부호만 표시해 두었다. 즉 이것은 간접적으로 입증된 기존 읽기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그 바람직한 읽기의 문법 형식이 성서 시대의 다른 히브리어 본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읽기의 외적 지원의 종류에 입각하여 거기에는 “unatt” (=unattested 입증되지 않은)라는 약자 혹은 “conjec-phil” (philological conjecture 언어학적 추측)이라는 약자를 표시해 놓았다. 제안된 읽기가 추측인 경우에는 거기에는 “pref” (preferred 바람직한) 라는 약자를 써넣는 대신에 “conj” (=conjecture 추측)라는 약자를 표시해 놓았다. 본문비평장치 자체가 본문 “전달”의 증거를 제시하려고 만들어진 것인 만큼, 바람직한 읽기를 제안하는 것은 결코 본문의 문학사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다. 어느 한 책에서 다른 문학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읽기들에는 “lit” 표시로 본문의 성격규명을 해놓았다 (“lit”의 뜻에 관해서는 이하 “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약자”를 보라).

어떤 항목이 별 권의 「주석」에서 더 상세히 논의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는 그러한 항목에다가는 끝에 ♣ 표를 붙여 놓았다. 다른 경우에도 이것이 「주석」에서 논의되는 것일 때는 본문비평장치의 기재 사항에는 →♣ 표시가 주어진다. • 표시는 본문비평장치 안에서 한 항목의 설명이 끝났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지면 편집

이 편집의 주요 요소는 기초 본문과 마소라 주기와 본문비평장치와 본문 주석과 마소라 주기의 번역이다. 이들 다섯 가지 요소가 현재의 편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편집되어 있다. 매 페이지 한가운데에는 레닌그라드 사본 (M^L)의 마소라 본문을 기초 본문으로 놓았다. 장과 절은 아라비아 숫자로 해당 본문 안에 기록해 넣었고, 페이지에 따라 왼쪽 혹은 오른쪽 여백에서 장과 절 표시를 한 번씩 더 반복하였다. 성구집 부분과 이것과 유사한 마소라 주기(예를 들면, 거꾸로 세운 *nûnîm* 같은 것)는 M^L에 있는 그대로 안쪽 여백에 표시해 넣었다. 이밖에 성구집의 이름들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일년 주기에 따라 책이름과 함께 토라의 오른쪽 페이지 상단 난 외 표제 자리에 표기하였다.

M^L의 소마소라 주기는 각 페이지의 바깥쪽 여백에 표기하였다. 다만 독자들

이 유념할 것은 기초 본문 안의 낱말이나 낱말 사이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것이 바로 소마소라 주기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나 낱말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 본문에 동그라미 표시는 있으나 난 외 여백에 소마소라 주기가 없는 것이 있고, 소마소라 주기는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표시를 가진 낱말이나 낱말들이 기초 본문 안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이 편집을 사용하는 독자들은 이 편집에 제시된 약자 해설과 용어 해설의 도움을 받아 소마소라 주기를 스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ML 본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주거나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는 소마소라 주기는 별 권 「주석」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독자들은 그 경우에 「주석」 부분을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M^L의 대마소라 주기는 매 페이지 상단 책제목 바로 밑에 기재되어 있다. 사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마소라 주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낱말이나 낱말들이 기초 본문 안에 어떤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대마소라 주기를 갖는 낱말(들)은 소마소라 주기를 가지고 있는 낱말(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 독자가 대마소라 주기와, 기초 본문 안에 그것과 관련된 낱말이나 구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현재의 편집은 그러한 주기를 성서 본문 안의 낱말의 순서에 따라 편집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대마소라의 순서는 사본의 페이지 안에 기록된 것과는 달라지게 되었다. 대마소라 주기의 번역은 「주석」에 나와 있다. M^L의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주기 혹은 난해한 주기에 대한 설명도 「주석」에 나와 있다.

본문비평장치는 페이지 밑에 배치하였다. 편집자들은 본문비평장치의 표제어와 기초 본문 안에 있는 해당 본문과를 연결시키기 위한 문자나 숫자나 부호를 기초 본문 안에 표시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독자는 해당 표제어 자체가 그것이 한 낱말이든 그 이상의 낱말들이든 모두 완전한 형태로 본문비평장치에서 다시 한 번 재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본문비평장치는 그것 자체로 완결된 독자적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한 부호를 주어 「주석」에서 더 논의가 계속됨을 밝혔다.

M^L, 본문과 마소라 주기

낱권 서론마다 거기에서 사용된 증거 본문들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다. 그

러나 M^L은 히브리어 성서 모든 책에 다 사용되는 동일한 증거 본문이므로 매번 낱권 서론에서 반복하여 소개하는 것을 피하고, BHQ의 일반 서론에서 한 번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한다.

러시아의 세인트 피터스백에 있는 러시아 국립도서관의 제 2 피르코비치 컬렉션 서가(書架) 표시를 따라 B19a로 알려진 히브리어 구약 성서 사본은 달리 레닌그라드 코덱스 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었다. 이 도서관은 전에는 “[레닌그라드] 살티코브-시체드린 국립도서관”이라고 불리었고, 그 전에는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제국공립도서관”이라고 불리었다. 이 사본은 하카비와 스트락의 1875년 목록에 정식으로 독자적 사본 번호를 부여받고 등록되었고 상세히 소개되었다 (Harkavy, A. and Strack, H. L., *Catalog der hebräischen Bibelhandschriften der kaiserlichen öffentlichen Bibliothek* [St. Petersburg: C. Ricker, 1875; Leipzig: J. C. Hinrichs, 1875]). 그 후 이 사본은 오랫동안 이 목록에 기재된 대로만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베트아리에와 시랏과 글랏처 (M. Beit-Ariél, C. Sirat and M. Glatzer, *Codices Hebraicis Litteris Exarati Quo Tempore Scripti Fuerint Exhibentes, Tome 1, Jusqu'à 1020* [Monumenta Palaeographica Medii Aevi, Series Hebraica; Turnhout: Brepols, 1997])의 책이 이 사본에 관하여 더욱 더 철저하게 그리고 새롭게 기술함으로써, 오랫동안 표준적인 기술로 알려져 왔던 하카비와 스트락의 기술이 이 책의 것으로 대체되었고, 이 기술은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이 사본의 본문과 마소라가 소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개시를 한 이가 칼레이다. M^L의 본문과 마소라에 대한 주목할 만한 기술로서는 브로이어(M. Breuer, *כרת ארם צובה והנוסח המקובל של המקרא* [Jerusalem: Mosad HaRav Kook, 1976]), 예빈 (I. Yevin, *Introduction to the Tiberian Masorah* [Missoula: Scholas Press, 1980]), 레벨 (E. J. Revell, "The Leningrad Codex as a Representative of the Masoretic Text," in *The Leningrad Codex*, xxix-xlvi [ed. D. N. Freedman, et al.;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8; Leiden: Brill Academic Publishers, 1998]), 도탄 (A. Dotan)의 수많은 저작이 있다. 아래의 논의는, 비록 현재로서는 앞으로 마무리될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단계에서는 이 연구가 더 발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부분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저작들에 근거한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편집자들 자신들의 M^L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이 코덱스 형 사본은 사무엘 벤 야콥이 라비 메보락 벤 요셉 하코헨을 위하여 카이로에서 만든 것이다. 이 사본의 제작 연대가 서로 다른 다섯 종류의 역법(曆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을 풀어보면, 서기 1008년, 1009년, 1010

년, 1013년 등 서로 다른 네 연대가 나온다. 베트아리에와 시랏과 글랏처를 따라서 우리는 서기 1008년을 이 사본의 탄생 연대로 받아들인다. 사무엘 벤 야콥은 사본이 지니고 있는 모든 국면 곧 자음 본문, 모음 부호, 마소라 주기 등을 다 복사하고 교정하였다.

이 사본은 491 개의 폴리오 판 크기의 양피지로 되어 있다. 글씨는 검정색에서 흑갈색에 이르는 색깔이 나는 잉크로 쓰여 있다. 첫 463 폴리오에는 모음 부호와 억양 부호와 소마소라 주기와 대마소라 주기와 함께 24권으로 나뉜 히브리어 구약전서가 들어 있다. 일반적으로, 매 페이지는 세 칼럼으로 나뉘어 있고, 시편 읊기 잠언은 매 페이지 두 칼럼으로 나뉘어 있다. 각 칼럼은 27행이다. 소마소라 주기는 페이지 옆 여백과 칼럼 사이 여백에 기록되어 있고, 대마소라 주기는 매 페이지 상단과 하단 여백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본은 중세 특유의 전형적인 동방 사본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본에 대한 철저한 사본학상의 논의와 권말 부록에 대한 본문과 번역문을 보려면 위에 소개한 베트아리에와 시랏과 글랏처의 저작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본은 그 상태가 전반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매 페이지마다 악화되고 손상된 구체적인 상태는 위에서 인용한 어드맨/브릴 복사판의 일부인 보존 노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본의 파손 정도는 사본에 쓰인 글을 해독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판독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7장 28-31절이 적힌 폴리로 250 같은 것은, 인접 칼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오른쪽 칼럼의 반 이하에 적힌 본래의 본문의 많은 부분이 넓게 벗겨져서 후대에 그 위에 잉크로 다시 조잡하게 덮어 쓴 흔적이 있다. 단지 이 칼럼에서만 잉크로 다시 덮어쓰는 과정을 통해서 본문 안에 오류가 기어 들어갔다. 30절에 본래는 **וַיִּבְרַח-בְּנָאִים**가 쓰여 있었다. 그러나 뭉개진 것을 다시 쓸 때는 **וַיִּבְרַח-בְּנָאִים**라고 썼다. 다시 덮어 쓴 손이 본래의 철자를 오해한 것이다. 최초의 본문이 뭉개지고 그 위에 누군가가 잉크로 다시 덮어 쓴 것은 어드맨/브릴의 흑백 복사판으로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인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이 프로젝트가 만든 칼라 투명 필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덟 개의 부록 중에 여섯 번째 것 (폴리오 479r)에서 사무엘 벤 야콥은 자신이 다른 필사본, 곧 아론 벤 모세 벤 아세르가 쓰고 고친 다른 필사본을 보고서 이 사본을 교정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M^L의 교정된 본문과 마소라가 벤 아세르의 전통에 매우 가깝게 일치한다는 것은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벤 아세르와 벤 납달리가 차이를 보이는 「키타프 알킬라프(Kithāb al-khilāf)」에서 예를 들어보면, M^A는 벤 아세르를 94% 따르고, M^L은 92% 따른다. 벤 아세르와 납달리가 다른 전거에 대항하여 서로 일치하는 데에서, M^A와

M^L 은 벤 아세르를 90% 따른다. 이렇게 일치하는 점에서 현존하는 다른 어느 벤 아세르 전통보다 M^A 와 M^L 이 이렇듯 가깝다. 그리하여 M^L 이 티베리아 마소라 본문의 벤 아세르 전통을 가장 잘 이은 우수한 사본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M^L 은 벤 아세르의 전통에 충실한 점에 있어서는 M^A 다음으로는 첫째이고, 그리고 구약에 포함된 책을 다 가지고 있는 가장 잘 보존된 사본이다. 이제 널리 인정되고 있는 바이지만, 이 티베리아 마소라 본문은 사해 두루마리들 사이에서도 옛 선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본문의 오랜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신중하게 잘 보존되어 온 후손 사본이다.

자주 언급되듯이, M^L 은, 비록 우수한 사본이기는 하지만 M^A 만큼 신중하게 준비된 것은 아니다. 조심성의 수준, 그리고 M^A 로부터의 변화의 수준이 본문의 국면에서 서로 다르다. 중간 모음 글자는 별문제로 하고, 자음 본문 안의 변화도 극히 드물다. 중간 모음 글자 사용에 있어서, M^L 은 더욱더 평범한 철자법 편중의 경향을 보인다. 읽기 전통에 나타난 변화도 적은 편이다. “씨투모트”와 “퍼투호트” 사용에 있어서의 변화는 좀 많은 편이다.

M^L 과 M^A 사이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그리고 M^L 의 부정확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바로 마소라 주기 표시이다. 마소라 주기의 내용에 있어서는 M^L 과 M^A 사이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정보 제시 방법에 있어서 이들은 크게 차이를 보인다. 여러 연구에서도 분명히 드러났고 특히 BHS 안에 들어 있는 바일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M^L 의 마소라 주기의 상당수가 사본의 본문 안에 그 관련 낱말(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때로는 마소라 주기가 잘못 복사되는가 하면, 참고 구절 제시에 혼선을 빚기도 하고, 위치가 틀린 곳에 놓이기도 하였다. 다른 한 편,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본의 완성의 측면에서 볼 때, 뿐만 아니라 M^L 에만 있는 특수 자료를 고려해 볼 때, M^L 의 마소라가 지닌 참 가치는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감사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그 목적이 성취되도록 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여러 기관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선, 도미니크 바르텔레미, 한스 피터 뢰거, 제임스 샌더스, 이상 네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분들은 미국성서공회의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추진해 왔고, 일찍부터 이와 같은 새로운 히브리어 성서 편집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편집위원회 탐구를 위한 모임을 주선해 주었다. 우리는 또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학문용성서편집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프로젝트의 초창기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얀 드 바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또한 출판사 쪽에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의 새로운 편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새로운 편집의 출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불가결한 실제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 지그프리트 모이러와 그의 후계자 얀 비노, 그리고 독일성서공회 당국에게도 충심으로 감사한다. 이 새로운 편집은, 탄력성과 통제력을 지닌 새로운 컴퓨터 출판 방법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이 편집에 포함될 모든 자료들을 모두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해 넣을 수 있었고, 입력된 데이터 베이스를 적절히 활용하여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 전자 형태로 혹은 인쇄 형태로 다양하게 전환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이 프로젝트의 「정보 시스템 컨설턴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알란 그로브스, 그의 프로그램 조수 소지안토, 독일성서공회의 빈프리트 바더 등의 지도와 협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BHQ를 대신하여 이 분들의 헌신적 노력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우리는 또한 레닌그라드 사본을 투명 컬러 필름으로 훌륭하게 제작해 준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고대성서 사본 센터와 그곳 원장 제임스 샌더스, 총무 마이클 펠프스의 협조에 감사해 마지않는다. 마소라 부분을 위한 프로젝트 컨설턴트가 되어주기로 흔쾌히 허락해 주고 그 방면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준 텔아비브대학교의 아론 도탄에게도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는 동안 계속되는 실무 작업에서 필요불가결한 공헌을 한 분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중요한 공헌에 대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한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해럴드 스캔린은, 성서 사본과 다른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는 일이라던가, 영문 서론과 각 권의 영문 주석의 영어 문체를 다듬는 편집자로서 수고를 해 주는 등 실제적 방법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였다. 슈투트가르트의 노버트 라버와 더블린의 조나단 키니는 M¹의 메길로트 부분의 전자 본문과 투명 필름을 일일이 세밀하게 대조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결코 적지 아니한 공헌을 한, 프리백 성서학부의 버나드 데 샤퍼는, 프로젝트 팀 멤버들 사이에서 재빨리 정확하게 오고 가야 하는 정보와 자료를 믿음직스럽게 잘 관리해 주었다.

우리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특히 두 인물을 기억하고자 한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지 않지만, 라이덴 대학교의 마틴 얀 물더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레이몬드 달라드는 각각 「아가」와 「에스더기」의 편집을 시작하던 분들

이었다. 이 두 분이 이 프로젝트를 맡고 나서 얼마 안되어 줄지에 타계함으로써 두 권의 편집이 완료되지 못했다.

편집자들은 편집자 각자가 소속한 기관이 베풀어 준 사려 깊은 배려와 협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 그런 여러 기관의 협조가 없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와 사려 깊고 유익한 비평을 함께 하여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동료들에게도 감사한다. 이 모든 협조와 지도 편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BHQ 프로젝트 팀 멤버들이 이 새로운 편집을 사용하는 독자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선배들을 따라 루돌프 키텔이 남겨준 문장 속에서 우리의 적절한 결론을 찾고자 한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는 ‘낮이 낮에게 말한다(Dies diem docet)’라는 격언에 늘 복종할 것이다. 다만 바라기는, 이 책이 어디에서나 공정한 비평가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이 주제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독자들을 만나기를 바란다!”

1998년 5월

편집위원회

부호와 약자

아래 목록은 BHQ에 사용된 각종 부호와 약자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성서 각 권의 책이름 약자나 외경과 위경의 책이름 약자, 그리고 성서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호 등은 JBL, CBQ, HTR 등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 (이런 것에 관해서는 JBL 107[1988] 579-586의 투고 규정을 보라.) 이 목록이나 JBL, CBQ, HTR 등에도 올라 있지 않은 부호나 약자를 쓸 때는 「시카고 체재 편람」(*The Chicago Manual of Style: Fourteenth Edition, Revised and Expand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93)의 목록과 규정에 올라 있는 것을 그대로 따랐다.

아래 목록에 기재(記載)된, 사본이나 증거 본문을 표시하는 부호나 약자의 경우에는, 다른 비평적 편집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그대로 따랐다. 고대 그리스어 역의 경우는, 「괴팅겐 칠십인역」(*Goettingen Septuaginta Unternehmen*)에 사용된 사본의 부호와 약자를 그대로 따라서 사용하였다. 다만, 「에스터기」의 알파 본문(Alpha-Text of Esther)만은 (아래에 제시된) G^{AT}의 부호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쿵관과 사해 부근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자료에 사용된 사본 부호는 휘츠마이어의 「사해 두루마리: 주요 출판물과 연구 도구」(J. A. Fitzmyer, S.J., *The Dead Sea Scrolls: Major Publications and Tools for Study*, SBLRBS, 20; rev. ed.; Atlanta: Scholars, 1990, 1-8)에 사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존의 약자가 문헌의 이름에 근거한 것은 그 문헌의 일련 번호에 근거하여 만든 부호를 선호하였다. 라틴어역 불가타의 경우에는 산 기롤라모의 「라틴어 불가타역 성서」(*San Girolamo, Biblia Sacra iuxta Latinam Vulgatam Versionem*. Eighteen volumes. Rome: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26-1995)에 사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페시타의 경우 사본 부호와 약자는 라이덴 페시타 프로젝트가 고안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증거 본문 기호

- α' 아퀼라(Aquila)
- αλ' ὁ ἄλλος, οἱ ἄλλοι
- β' 헥사플라의 둘째 난 (Second column of the Hexapla)
- γ' "셋" (the "Three")

- ε' 퀸타 (Quinta)
- εβρ' ὁ ἐβραῖος
- ετ' οἱ ἕτεροι
- ς' 섹스타 (Sexta)
- ζ' 셉티마 (Septima)
- θ' 테오도손 (Theodotion)
- ιω' 요시포스 (Iosippos)
- λ' λοιποί
- ο' οἱ ἐβδομήκοντα
- π' πάντες
- σ' 심마쿠스 (Symmachus)
- συρ' ὁ Σύρος
- <α'> 되번역으로 얻은 아퀼라 (Aquila, established by retroversion)
- <αλ'> ὁ ἄλλος, οἱ ἄλλοι, 되번역으로 얻은 것 (established by retroversion)
- <γ'> 되번역으로 얻은 "셋" (the "three", established by retroversion)
- <ε'> 되번역으로 얻은 퀸타 (Quinta, established by retroversion)
- <εβρ'> 되번역으로 얻은 ὁ ἐβραῖος, (established by retroversion)
- <ετ'> 되번역으로 얻은 οἱ ἕτεροι, (established by retroversion)
- <ς'> 되번역으로 얻은 섹스타 (Sexta, established by retroversion)
- <ζ'> 되번역으로 얻은 셉티마 (Septima, established by retroversion)
- <θ'> 되번역으로 얻은 테오도션 (Theodotion, established by retroversion)
- <λ'> 되번역으로 얻은 λοιποί (λοιποί, established by retroversion)
- <ο'> 되번역으로 얻은 οἱ ἐβδομήκοντα (οἱ ἐβδομήκοντα, established by retroversion)
- <π'> 되번역으로 얻은 πάντες (πάντες, established by retroversion)
- <σ'> 되번역으로 얻은 심마쿠스, (Symmachus, established by retroversion)
- <συρ'> 되번역으로 얻은 ὁ Σύρος (ὁ Σὺρος, established by retroversion)

헥사플라 본문 부호에 하이픈 연자부호(連字符號)가 붙은 것 (예를 들면 α'-, σ'-, θ'-)은 한 본문이 헥사플라 본문의 둘 혹은 그 이상의 본문에 함께 속하여 동일한 증거 본문이 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Akh 아크밈의 (Akhmimic)

- anon 익명(匿名 anonymous)의 (혹은 일반적으로 제롬이나 크리소스톰이 말하는 확인되지 아니한 그리스어 증거 본문. 늘 증거 본문 자료 이름의 우측에 위 첨자로 표시된다.[예: Hie^{anon}])
- Barb 하박국3 바버리니 본문 (Barberini text of Habakkuk 3)
- Bo 보하이르 (Bohairic)
- G 고대 그리스어역의 읽기(the reading for the Old Greek)
 - G* 고대 그리스어역의 읽기, 그리스어 칠십인역의 비평적 편집의 본문과 다른 것으로서, BHQ 편집자가 판단한 고대그리스어 역의 읽기
 - G^{Ms} 적정대조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고대 그리스어역 읽기에 대한 단일 증거 자료
 - G^{Mss} 적정대조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고대 그리스어역 읽기에 대한 하나 이상의 증거 자료
- Gα (문학적 자료가 다른, “parallel”로 표시되는) 동일 본문의 평행 번역본이 있을 경우에(예를 들면, 에스라기, 왕상 12:24), 이 부호는 “첫째” 역본을 가리킨다(예를 들면, Esdras α', 왕상 12:24a-z).
- Gβ (문학적 자료가 다른, “parallel”로 표시되는) 동일 본문의 평행 번역본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에스라기, 왕상 12:24), 이 부호는 “둘째” 역본을 가리킨다(예를 들면, Esdras α', 왕상 11:1-12:14, Esdras β').
- G^{AT} 에스더기의 알파 본문(the Alpha-Text of Esther)
- G^L 고대 그리스어역의 루시안 교정(the Lucianic Recension of the Old Greek)
- G^O 고대 그리스어역의 오리겐 교정(the Origenian Recension of the Old Greek)
- Ga 갈리아 시편 (Galican Psalter)
- Gnz 카이로 게니자에서 나온 사본 파편 (fragment from the Cairo Geniza 늘 증거 사본의 위 첨자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T^{Gnz})
- Hbrs 「히브리어 시편」(*Psalterium iuxta Hebraeos*)
- Hev 나할 헤베르에서 나온 그리스어 역 소예언서 (the Greek Minor Prophets Scroll from Nahal Hever)
- Hex 설명 없이 언급된 헥사플라의 읽기 (a Hexaplaric reading referred to without specification)
- Hie 히에로니무스 (=제롬) Hieronimus (Jerome) (제롬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고하는 경우를 나타낼 때 사용한 Hie^{hebr}와 제롬이 히브리어 본문을 설명하는 경우를 말하는 Hie^{comm} 과는 서로 구별되는 것을 유념하라)

- Hie^{SF} 수니아와 프레텔라에게 보낸 제롬의 편지 (Jerom's letter to Sunnia and Fretela)
- La 고대 라틴어(Old Latin)
- La^{Amb} 암브로시우스의 글에 인용된 것 (Quotations in the writings of Ambrosius)
- La^{Ep} 에피파니우스 스킴라스티쿠스가 번역한 필로의 아가(雅歌) 주석 번역의 주제 본문 (the Lemma text in the translation by Epiphanius Scholasticus of Philo of Carpasia's commentary on Canticles)
- La¹⁶⁹ 살츠부르크 성베드로 수도원 소장 사본 Ms IX 16 (Salzburg, Abbey of St. Peter, Ms IX 16)
- M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 (L 사본 및 수집 대조된 티베리아 사본들과 일치하는 것)
- M^[siglum] (e.g., M^C) 단일 마소라 사본의 본문으로서 늘 위 첨자로 표기됨
- M^A 알렙포 코덱스(Aleppo Codex)
- M^B 영국박물관 소장 사본 Oriental Ms. 4445
- M^C 예언서 카이로 코덱스 (Cairo Codex of the Prophets)
- M^L 레닌그라드 코덱스(the Leningrad Codex),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아 국립도서관 (전 살티코브-시체드린 공립 도서관) 소장 피르코비치 II.B19a 사본
- M^{L17}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아 국립도서관 (전 살티코브-시체드린 공립 도서관) 소장 피르코비치 II.17 사본 (manuscript Firkovich II. 17)
- M^{L34}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아 국립도서관 (전 살티코브-시체드린 공립 도서관) 소장 피르코비치 II.34 사본 (manuscript Firkovich II. 34)
- M^{S1} 샷손 사본 1053(ms Sasson 1053)
- M^{S5} 샷손 사본 507 (ms Sasson 507)
- M^Y 캠브리지 대학교, 사본 Add. Ms. 1753
- Mur 무라바아트 88 (Murabb'ât 88)
- S 시리아어 역의 읽기 (the reading of the Syriac)
- S* 시리아어 역의 읽기, 암브로니아누스 B21 사본에 근거하여 편집된 라이덴 페쉬타의 비평적 편집의 본문과는 다른 것으로서, BHQ 편집자가 판단한 시리아어 역의 읽기
- S^{Ms} 적정대조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시리아어 역 읽기에 대한 단일 증거 자료
- S^{Mss} 적정대조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

- 된 시리아어역 읽기에 대한 하나 이상의 증거 자료
- Sa Sahidic 사히드어 (Sahidic)
- Smr 사마리아 오경 (Samaritan Pentateuch)
- Syh 시로헥사플라 (Syrohexapla)
- T 타르굼의 읽기 (오경에서 이 부호는 수집 가능한 모든 오경 타르굼이 입증한 본문을 뜻한다.
- T* 타르굼의 읽기, 적정 본문 대조 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타르굼의 읽기와는 다른 것으로서, BHQ 편집자의 판단에 각 번역의 타르굼 본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읽기. 각 타르굼 번역판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하였다. T^{O*}, T^{I*}, T^{N*}, T^{F*}.
- T^R 에스더기 첫 타르굼 (Targum Rishon to Esther)
- T^{Sh} 에스더기 둘째 타르굼 (Targum Sheni to Esther)
- T^{Smr} 사마리아 오경 타르굼 (Samaritan Pentateuchal Targum)
- T^{Mss} 적정 대조 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타르굼 읽기에 대한 단일 증거 자료
- T^{Mss} 적정 대조 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타르굼 읽기에 대한 하나 이상의 증거 자료
- T^{OIF}, T^{NIF}, T^{NJ}, etc. 같은 읽기에 증거가 되는 여러 오경 타르굼 (multiple Pentateuchal Targumin witnessing the same reading)
- T^{Be} 잠언 타르굼 사본 베르린 오리엔탈리스 1213 (the manuscript Berlin Orientalis 1213 for the targum of Proverbs)
- T^{Br} 잠언 타르굼 브레슬라우 사본 (the Breslau manuscript of the Targum for Proverbs)
- T^F 오경 타르굼 단편 (the Fragment Targum to the Pentateuch)
- T^I 오경 위(僞) 요나단 타르굼 (Targum Pseudo-Jonathan to the Pentateuch)
- T^N 오경 네오피티 타르굼 (Targum Neofiti to the Pentateuch)
- T^O 오경 온켈로스 타르굼 (Targum Onqelos to the Pentateuch)
- T^U 잠언 타르굼, 바티카누스 우르비나스 사본1 (the manuscript Vaticanus Urbinas 1 for the Targum of Proverbs)
- T^Z 잠언 타르굼 자모라판 (the Zamora edition of the Targum for Proverbs)
- V 라틴어역 불가타의 읽기 (the Reading of the Vulgate)
- V* 불가타의 읽기, 산 기롤라모(San Girolamo) 판 비평적 편집에 반영된

- 독법과 다른 것으로서, BHQ 편집자가 판단한 불가타 역의 읽기
- V^{Ms} 산 기롤라모(San Girolamo) 판의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불가타 읽기에 대한 단일 증거 자료
- V^{Mss} 산 기롤라모(San Girolamo) 판이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읽기에 대한 하나 이상의 증거 자료
- V^{We} 베버의 불가타 (Weber, R., ed. *Biblia Sacra iuxta vulgatum versionen*. Two volumes.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75)

본문비평장치에 사용된 부호

- 본문비평장치 안에서 한 항목의 끝 표시
- ||
- | 서로 다른 본문 전승 구분 표시
- > ...에 없다
- 유의해 보도록 방향 유도
- ✓ 어근
- ♣ 별책 주석에 더 상세한 설명이 있다는 표시
- 1, 2, etc. (위 첨자) “첫째” “둘째”
- + 표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prec”과 “fol”과 함께 사용됨
- ? 한 두 가지 사항에 의심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위 첨자로 쓴다(?).
 - 그 독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의 여부를 잘 모를 때 (예를 들면, G[?], G^{*?})
 - 그 독법을 헥사플라의 증거 본문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러한 용법들은 증거 본문들의 계열에 관한 의심이 있는 곳 (이 경우 “indet” 약자가 사용되는데)에서 각 경우의 특성에 따라 구별된다.
- // 본문비평장치의 서두에, 그 페이지 어디서나 일반적 방법으로 표현될 평행 본문의 참조 구절을 표시한다.
- * 히브리어 사본 표시에 위 첨자 형식으로 표기될 경우는 (예를 들어, M^A), 첫 필사자의 부정확한 기록을 표시한다. 같은 기호가, 개별 사본이 아닌, 고대 역본에 첨자로 붙어서 표기된 경우 (예를 들면, G^{*}), 이것은 BHQ 편집자가 그 역본의 그러한 독법을 원문의 반영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표시한다. 같은 기호가 헥사플라 증거 본문에 사용될 경우 (예를 들면, a^{*}), 이것 역시 증거 본문에 대한 헥사플라의 독법

에 대한 과제에 관한 BHQ 편집자의 선택을 표시한다. 그러한 결정은 BHQ의 「주석」에서 설명된다.

약자

abbr	abbreviation 약자(略字)
act	active 능동
adj	adjective 형용사
ampl	amplification 확대
aram	Aramaic 아람어의
art	article 정관사
assim	assimilation 동화(同化)
ast	asterisk 별표(*): 이 별표는 이 표가 붙어 있는 본문, 곧 논의되고 있는 본문에 대하여 원-마소라 본문 (proto-MT)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자체 내에 보고가 되어 있는 증거 본문은 첨자로 표시된다 (곧, ast ^{Syh}). 이 증거는, 물론, ast와는 별도로, 자체의 고유한 기능 때문에, 다시 인용될 수 있다.
caus	causative 사역(使役) 동사
cf	confer 비교하라
chron	chronology 연대기(年代記)
cohort	cohortative 권고(勸告)
comm	commentary 주석
confl	conflation 이문-융합(異文融合)
conjec	conjecture 추측
conjec-phil	philological conjecture 언어학적 추측: 이것은 한 바람직한 읽기가 세 가지 중에 하나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1) 그것의 어근이 성서 시대의 히브리어 [혹은 다니엘서와 에스라기의 경우에는 아람어] 안에서 입증된 것이지만 그것의 binyan이나 그것에 상응하는 binayn은 둘 다 입증되지 않은 것; (2) 그것의 어근이 성서 시대의 히브리어 안에서 입증된 것이지만, 그 경우에 나타난 그런 의미로는 입증되지 않은 것; (3) 그것의 어근이 성서 시대의 히브리어 안에

서 입증되지 않은 것.

cons	of the consonantal text 자음 본문의
conv	converted (imperfect/perfect) 전환(轉換)된 (미완료/완료)
copt	Coptic 콥트어의
cp	compare 비교하라
crrp	corrupt 본문의 전와(轉訛)
cstr	construct state 구문격(構文格)
ctext	context 문맥
cultur	cultural 문화적인
dbl	double reading/translation 중복 본문/번역
differ	difference, different 차이
differ-txt	different text 다른 본문 - 달리 인용되지 아니할 한 읽기를 “묘사” 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적인 표시법 (곧, 시리아어역 시편의 표제, 평 행구, 그러나 Tanak에서는 다른 본문)
dissim	dissimilation 부동화(不同化), 이화(異化)
ditt	dittography 중복오사(重複誤寫)
div	division [of the consonantal text] 자음본문의 구분
elus	elusive [motivation or cause] 이독의 동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em scr	emendation of the scribes 서기관들의 수정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티쿠네 쏘프림(Tiqqune Sopherim)” 목록에 들어 있거나 안 들 어 있거나, 서기관들의 수정이 분명한 것)
emph	giving emphasis 강조
err	error 오류
euphem	euphemism 완곡법(婉曲法)
exeg	exegesis 주석
explic	[making] explicit 함축의미명시(含蓄意味明示)
facil	facilitation 간편화(簡便化)
foll	followed by 뒤 선 (“prec”과 +부호도 유의해 볼 것)
frag	fragmentary 파편(破片)의
georg	geography 지리
gk	Greek 그리스어의
gram	grammar 문법
graph	graphic 그림의
hapl	haplography 중자탈락(重字脫落)

harm	harmonization 조화
hebr	Hebrew 히브리, 히브리어
hist	history, historical 역사, 역사적
homarc	homoioarcton 유사문두(類似文頭)
homtel	homoioarcton 유사문미(類似文尾)
ideol	ideologically [motivated] 이념적 [동기]
idiom	idiom/idiomatic 속어, 관용구의
ign	ignorance 무지
impf	imperfect 미완료
implic	[making] implicit 함축(含蓄)
impv	imperative 명령
inauth	inauthentic 출처불명
indet	indeterminate 불확정한
indic	indicative 직설법의
inf	infinitive 부정사(不定詞)
insuf	insufficient [data for conclusion] [결론을 위해서는] 부족한 [자료]
interp	interpretation 설명
interpol	interpolation 삽입
interr	interrogative 의문의
irrel	irrelevant [to the case at hand] 현재의 문제와는 부적절한
Jos, Ap	Josephus, <i>Contra Apionem</i> (<i>Against Apion</i>) 「아피온을 거슬러」
Jos, Ant	Josephus, <i>Antiquitates Judaicae</i> (<i>Jewish Antiquities</i>) 「유대 고사(故事)」
Jos, BJ	Josephus, <i>Bellum Judaicum</i> (<i>The Jewish War</i>) 「유대 전쟁기」
Jos, Vit	Josephus, <i>Vita</i> (<i>Life</i>) 「삶」
ket	Ketive (늘 M에 위 첨자로 쓰임. 예 M ^{ket})
K-R	Kennicott와 de Rossi판에 기록된 사본들
lacun	lacuna 탈문(脫文)
lat	Latin 라틴어의
lem	lemma 올림말, 표제어(標題語)
lex	lexical 사전(辭典)의
lib	liberty 자유
lit	literary 문학의
loc	locative 처격(處格)

metath	metathesis 음위 전환(音位轉換)
Mf	Masorah finalis 끝 마소라
mg	margin 난외(欄外)
midr	midrash 미드라쉬
Mm	Masorah magna 큰 마소라
modern	modernization 현대화
Mp	Masorah parva 작은 마소라
ms	manuscript 사본 (단수)
mss	manuscripts 사본 (복수)
narr	narrative 이야기
neg	negative 부정적(否定的)인
obel	obelos [=] 오벨로스 Since: 이 오벨로스 표는 이 표가 붙어 있는 본문, 곧 논의되고 있는 본문에 대하여 원-마소라 본문 (proto-MT)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자체 내에 보고가 되어 있는 증거 본문은 첨자로 표시된다 (곧, obel ^{Syh}). 이 증거는, 물론, “obel”과는 별도로, 자체의 고유한 기능 때문에, 다시 인용될 수 있다.
obj	object 목적어
om	omission 삭제
order	word order 어순(語順)
origin	origin 원문 (한 바람직한 읽기가 기존의 다른 읽기를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기존 읽기가 아닌 경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
orth	orthographic 정자법(正字法)의
par	parallel text 평행본문
paraphr	paraphrase 바꾸어 말하기
part	particle 소사(小詞)
pass	passive 수동
pf	perfect 완료
Philo, Abr	<i>De Abrahamo (On Abraham)</i> 「아브라함에 관하여」
Philo, Aet	<i>De Aeternitate Mundi (On the Eternity of the World)</i> 「세상의 영원성에 관하여」
Philo, Agr	<i>De Agricultura (On Husbandry)</i> 「농업에 관하여」
Philo, Cher	<i>De Cherubim (On Chrubim)</i> 「그루빴에 관하여」

- Philo, *Conf De Confusione Linguarum (On the Confusion of Tongues)*
「방언의 혼란에 관하여」
- Philo, *Congr De Congressu quarendae (On the Preliminary Studies)*
「예비 공부에 관하여」
- Philo, *Dec De Decalogo (On the Decalogue)* 「십계명에 관하여」
- Philo, *Det Quod Deterius Potiori (The Worse attracts the Better)*
「더 나쁜 것이 더 좋은 것을 유인한다」
- Philo, *Ebr De Ebrietate (On Drunkenness)* 「술취함에 관하여」
- Philo, *Flacc In Flaccum (Flaccus)* 「플라쿠스」
- Philo, *Fug De Fuga et Inventionem (On Flight and Finding)*
「도주와 발견에 관하여」
- Philo, *Gaium, De Legatione ad Gaium (On the Embassy to Gaius)*
「가이우스 대사관에 관하여」
- Philo, *Gig De Gigantibus (On the Giants)* 「거인에 관하여」
- Philo, *Hyp Hypothesica ([Apologia pro Iudaeis])* 「휘포테티카」
- Philo, *Jos De Iosepho (On Joseph)* 「요셉에 관하여」
- Philo, *Leg Alleg Legum Allegoriae (Allegorical Interpretation)* 「우화적 해석」
- Philo, *Mig De Migratione Abrahami (On the Migrati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이주에 관하여」
- Philo, *Mos De Vita Mosis (Moses)* 「모세」
- Philo, *Mut De Mutatione Nominum (On the Changing of Names)*
「이름 바꾸기에 관하여」
- Philo, *Op De Opificio Mundi (On the Creation)* 「창조에 관하여」
- Philo, *Plant De Plantatione (On Noah's Work as a Planter)*
「노아의 경작자로서의 생업」
- Philo, *Post De Posteritate Caini (On the Posterity and Exile of Cain)*
「가인의 후손과 추방」
- Philo, *Praem De Praemiis et Poenis (On Rewards and Punishment)* 「상과 벌」
- Philo, *Prov De Providentia (On Providence)* 「섭리에 관하여」
- Philo, *QE Quaestiones et Solutiones in Exodum*
(Questions and Answers on Exodus)
「출애굽기에 관한 질의응답」
- Philo, *QG Quaestiones et Solutiones in Genesin*
(Questions and Answers on Genesis)

- 「창세기에 관한 질의응답」
 Philo, *Quis Rerum Quis Rerum Divinarum Heres* (*Who is the Heir*)
 「그 상속인은 누구인가」
 Philo, *Quod Deus Quod Deus immutabilis sit* (*On the Unchangeableness of God*)
 「하나님의 불변성에 관하여」
 Philo, *Quod Omn Quod Omnis Probus Liber sit* (*Every Good Man is Free*)
 「선한 사람은 자유롭다」
 Philo, *Sac De Sacrificiis Abelis et Caini* (*On Sacrifices of Abel and Cain*)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관하여」
 Philo, *Sob De Sobrietate* (*On Sobriety*) 「절주(節酒)에 관하여」
 Philo, *Som De Somniis* (*On Dreams*) 「꿈에 관하여」
 Philo, *Spec Leg De Specialibus Legibus* (*On the Special Laws*)
 「특별법에 관하여」
 Philo, *Virt De Virtutibus* (*On the Virtues*) 「덕(德)에 관하여」
 Philo, *Vit Cont De Vita Contemplativa* (*On the Contemplative Life*)
 「묵상생활(默想生活)에 관하여」
 phonol phonological 음운론(音韻論)의
 pl plural 복수(複數)
 prec preceded by 앞 선 ("foll"과 +부호도 유의해 볼 것)
 pref preferred reading 선택된 본문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이독 중
 에서 "pref"라고 표시된 본문은 가장 초기의 것으로 입증된 본문으로
 선택된 본문임을 표시한다.)
 prep preposition 전치사
 pron pronoun 대명사
 ptc participle 분사(分詞)
 qere Qere 케레 (늘 M의 위 첨자[添字]로 사용됨. 예: M^{qere})
 redunt removing redundancy 잉여표현 제거
 refl reflexive 재귀(再歸)의
 rest restoration 회복
 seman semantic 의미론의
 sfx suffix 접미사(接尾辭)
 sg singular 단수
 shift shift of meaning 의미교체
 spont spontaneous 자발적인

styl	stylistic 문체의
subj	subject 주어
substit	substitution 대응(代用)
synct	syntactic 구문(構文)상의
syr	Syriac 시리아어의
theol	theological[ly motivated] 신학적 [동기]
tiq soph	Tiqqun Sopherim 티쿤 쏘프림: 서기관들의 수정. 이것은, 문제의 본문이 실제로 서기관들의 수정이라고 판단되든 안 되든, 서기관들이 성서의 본문을 수정해 놓은 것이라고 하여 전해져 오는 목록 안에 올라 있는 본문을 일컫는다.
transcr	transcription 필사(筆寫)
transf	transfer 이전(移轉)
transl	translational 번역상의
translit	transliteration 음역(音譯)
transp	transposition 전위(轉位)
txt	text 본문
unattest	unattested 입증되지 않은: 이 약자는, 되번역 (retroversion)을 통해서 얻은 한 바람직한 읽기가 binyan에 속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른 형태는 성서 시대의 히브리어 [다니엘서와 에스라기의 경우는 아람어]에서 입증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 대응 binyan은 입증된 것이다.
unconv	unconverted (imperfect/perfect) 변하지 않은 (미완료/완료)
usu	usual [expression] 일상 [표현]
v	verse 절(節 단수)
vv	verses 절(節 복수)
vb	verb 동사
via	특수한 기존 본문 독법에 자극제 구실을 한 히브리어 어근 혹은 히브리어 문법 형태
vocal	vocalization 발성(發聲)
vocat	vocative 호격(呼格)
vrs	version 번역본 (단수)
vrss	versions 번역본 (복수)

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약자 유형별 분류

아래에 제시된 목록은, 본문비평장치에 사용된 여러 유형의 “읽기”의 성격규명에 대한 정의(定意)와 거기에 사용된 약자(略字)를 해설한 것이다. 이 목록은, 구체적으로는, 성격이 규명되어 제시된 “읽기”와 편집자의 의견에 더 좋다고 생각되는 “바람직한 읽기” (때로는 “또 다른 읽기”) 사이의 관계의 성격을 규명한 편집자의 판단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먼저, 문제되는 “읽기”의 성격규명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이어서, 거기에 사용된 용어를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알파벳 목록에서는 약자가 올림말로 오르고, 이어서 정자(正字)가 표시되며, 그 용어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첨가된다.

유형별 성격규명

편집자는, 문제가 있는 “읽기”를 제시하고 그것의 성격을 규명할 때마다, 그렇게 규명할 만한 합리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그러한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 “읽기”의 성격을 유형별로 규명하는 것이다. 각 유형의 성격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어떤 이름을 지어 주는데 이것이 바로 각 “읽기”에 대한 성격 부여, 혹은 성격규명 (characterization)이다. 여기에서는 본문비평장치에 사용된 성격규명 용어들을 열거하고, 그것들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그러한 용어의 약자를 소개하려고 한다.

다음의 여덟 가지 유형 분류는, 특별한 “이독(異讀 variant reading)”과 “바람직한 읽기(preferred reading)” 사이에 내재하는 다양한 특이성에 따라, 다양한 “읽기”의 성격을 유형별로 구분(區分)해 본 것이다. 첫째 구분은, 관련성 기준(criterion of relevancy)에 입각한 것이다. 유형 I은 해당 쟁점과는 무관한 읽기의 성격을 기술한 것이다. 유형 II-VII은 쟁점과 관련이 있는 읽기의 성격을 기술한 것이다. 둘째 구분은, 어떤 형태의 차이가 두 읽기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저 확인만 하는 성격규명 (유형 II)과, 성격이 규명된 그 읽기가 바람직한 읽기로부터의 변화를 대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격규명 (유형 III-VII)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한 읽기를 다른 읽기에서 생겨난 변화로 기술한 성격규명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성격규명이 변화의 동기(動機)를 제시하는지 (유형

IV-VII), 혹은 동기를 제시함 없이 다만 변화에 연루된 그 본문의 움직임만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인지 (유형 III)에 근거하여 구분된다. 특수한 읽기와 관련된 변화의 동기를 제시하는 성격규명들은, 그 동기가 우연(偶然)한 것인지 (유형 IV), 의도(意圖)적인 것인지 (유형 VII), 또는 본문 전달자 쪽의 의식적(意識的)인 혹은 무의식적(無意識的)인 전달과정을 나타내는 충동의 결과인지 (유형 V-VI)에 따라 세분된다. 마지막으로, 셋째 구분은

한 읽기를 의도적 변화의 결과로 보는 성격규명들은 (유형 VII), 그 의도가 지닌 특이성의 정도에 따라서, 변화의 의도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 (VII. A.), 의도적 본문 변화의 결과(結果)와 관련하여 변화의 의도를 언급한 것 (VII. B), 의도적 본문 변화의 목적(目的)과 관련하여 변화의 의도를 언급한 것 (VII.C.) 등, 셋으로 세분된다.

I. 쟁점과 무관한 읽기

insuf	insufficient (불충분한)
indet	indeterminate (불확정한)
irrel	irrelevant (무관한)
lit	literary (문학적)

II. 다른 것과 다른 읽기, 그 차이점만을 확인하는 것

differ	difference (차이)
	differ-div (본문 구분상의 차이)
	differ-gram (문법상의 차이)
	differ-graph (자음본문 기록상의 차이)
	differ-orth (철자법상의 차이)
	differ-phonol (음운론상의 차이)
	differ-vocal (모음화의 차이)

III. 변화의 동기에 관한 언급 없이, 다른 읽기로부터의 변화의 “형태”를 대표하는 읽기

confl	conflation (서로 다른 두 본문 융합)
-------	----------------------------

dbl	double reading/translation (중복 본문/번역)
gloss	gloss (행간이나 난 외의 어구 주석)
metath	metathesis (낱말 안의 글자 자리 바꾸기)
om	omission (부재[不在] parablepsis)
spont	spontaneous (자발적)
transp	transposition (글월 안의 낱말 자리 바꾸기)

IV. 우연히 생긴 변화를 대표하는 읽기

ditt	dittography (중복오사[重複誤寫])
hapl	haplography (중자탈락[重字脫落])
homarc	homoioarcton (유사문두[類似文頭])
homtel	homoioteleuton (유사문미[類似文尾])

V. 무지 혹은 과오에서 생긴 변화를 대표하는 읽기

ign	ignorance (무지)
	ign-cultur (문화적 배경에 관한 무지)
	ign-georg (지리적 배경에 관한 무지)
	ign-gram (문법적 지식에 관한 무지)
	ign-lex (사전적 의미에 관한 무지)
err	error (오류)
	err-chron (연대의 오류)
	err-georg (지리의 오류)
	err-gram (문법의 오류)
	err-graph (자음본문 기록상의 오류)
	err-hist (역사적인 것과 관련된 오류)
	err-lex (사전적 의미의 오류)
	err-phonol (음운의 오류)
err-synt (구문의 오류)	

VI. 본문 요인 혹은 언어학적 요인에 대한 반응에서 생긴 변화를 대표하는 읽기로서 두 종류로 나뉜다.

VI. A. 원천 언어 (히브리어와 번역 증거본문들과 그것들의 대본들)의 난해성에 대한 반응에서 생긴 변화

facil	facilitation (쉽게 하기)
	facil-gram (문법 쉽게 하기)
	facil-lex (어휘 쉽게 하기)
	facil-seman (의미 쉽게 하기)
	facil-styl (문체 쉽게 하기)
	facil-synt (구문 쉽게 하기)

VI. B. 수용 언어의 몇 국면에 대한 반응에서 생긴 변화

transl	translational adjustment (번역상의 조절)
--------	------------------------------------

VII. 전승자의 의도에서 생긴 변화를 대표하는 읽기

VII. A. 의도는 명기되지 않지만, 그 대신 변화의 형태는 명기되는 것

lib	liberty (자유)
	lib-seman (의미론과 관련된 자유스런 변화)
	lib-synt (구문론과 관련된 자유스런 변화)
abbr	abbreviation (생략)
ampl	amplification (확대)
emph	giving emphasis (강조)
explic	making implicit information explicit (함축의미명시[含蓄意味明示])
implic	making explicit information implicit (함축[含蓄])
interpol	interpolation (삽입[插入])
paraphr	paraphrase (바꾸어 말하기)
rest	restoration (회복)
shift	shift of meaning (의미 이동)
substit	substitution (대치)
transcr	transcription (유사 음)

translit transliteration (음역)

VII. B. 변화의 결과와 관련하여 의도가 명기된 것

assim assimilation (동화)
assim-[reference] 특수 본문과의 동화 (참고 구절 제시)
assim-ctext (문맥 동화)
assim-cultur (문화 동화)
assim-par (평행본문 동화)
assim-styl (문체 동화)
assim-usu (표현양식 동화)

harm harmonization (조화)
harm-[reference] 특수 본문과의 조화 (참고 구절 제시)
harm-chron (연대 조화)
harm-ctext (문맥 조화)
harm-styl (문체 조화)
harm-synct (구문 조화)

modern modernization (현대화)

syst systematization (체계화)

VII.C. 변화의 목적에 관하여 명기된 것

exeg exegesis (주석)
euphem euphemism (완곡법[婉曲法])
interp interpretation (해석)
midr midrash (미드라쉬:유대교적 전통의 해석)
narr narrative (이야기)
theol theologically motivated (신학적 동기)
ideol ideologically motivated (이념적 동기)

VIII. 기타

bas base (기초 본문)
crrp corrupt(본문의 파손)

elus elusive (알기 어려운)
em scr emendation of the scribes (서기관들의 수정)
tiq soph Tiqqun Sopherim (티쿠네 쏘프림: 서기관들의 수정)
via
via ✓

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定意)와 약자(略字) 알파벳 순서 목록

abbr = abbreviation (생략) 이것은 서기관들이 긴 본문을 짧게 만듦으로써 생긴 본문이다. 서기관들의 본문 생략, 곧 본문의 삭제(deletion)를 말하는 것이다. 문학적 축약, 곧 편집상의 축약(redactional abridgment)과는 대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략은 필사자 혹은 번역자 쪽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하지만, 그러한 발생 배후의 동기의 성격은 명기하지 않는다.

ampl = amplification (확대) 이것은 서기관들이 짧은 본문에 내용을 첨가하여 본문을 확대한 것으로서, 문학적 확장(expansion), 곧 편집상의 확장과는 대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대부연은 필사자 혹은 번역자 쪽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하지만, 그러한 발생 배후의 동기의 성격은 명기하지 않는다. “ampl”과 “lit”은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한 책의 단일 편집 안에 들어 있는 본문이 전달 과정에서 발전된 것을 언급하는 것이고, 후자는 한 책의 단일 편집보다는 더 많은 편집의 잔존을 전제한다.

assim = assimilation (동화) 문학작품의 전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동화란, 유사한 본문 혹은 유사한 문맥이 있을 때 그것들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를 증대시키거나 아예 같게 해 버리는 어떤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동화는, 유사한 문맥이나 문체나 표현 양식 등, 본문 사이의 내용과 형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 발생할 수 있다. 성격별로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ssim-[reference] 특수 본문과의 동화 (참고 구절 제시)
- assim-ctext (문맥 동화)
- assim-cultur (문화 동화)
- assim-par (평행본문 동화)

assim-styl (문체 동화)

assim-usu (표현양식 동화)

base (기초 본문) 성서의 비평적 편집에서, 다른 사본들의 이독들을 비교해 보는 기초가 되는 본문을 일컫는다. “base”라고 표시된 본문은 반드시 현존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편집자가 어떤 본문에 “base”라는 표시를 줄 때에는, 그것은 기존 본문을 언급하는 것이던가, 그와 같은 본문이 번역 대본 (Vorlage)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읽기가 실제로 존재해 있었다고 하는 확실성의 정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via”(아래 정의를 볼 것)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confl = conflation (서로 다른 두 본문의 융합) 입증된 두 본문이 하나로 융합된 것으로 판단될 때 이 용어를 쓴다.

crrp = corrupt (본문의 파손) 정확한 의미를 해독해 낼 수 없을 정도로 본문이 파손되었거나 바뀐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 용어를 쓴다.

dbl = double reading/translation (중복 본문/번역) 같은 본문을 거듭 읽거나, 같은 내용이 두 가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differ = difference (차이) 이 용어는 차이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다만 본문들 사이의 차이점에만 주목하도록 한다. “differ”에 여러 용어를 결합시켜, 차이의 성격을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 형태로 구분하였다.

differ-div (본문 구분상의 차이)

differ-gram (문법상의 차이)

differ-graph (자음본문 기록상의 차이)

differ-orth (철자법상의 차이)

differ-phonol (음운론상의 차이)

differ-vocal (모음화의 차이)

ditt = dittography (중복오사[重複誤寫]) 글자나 말을 우연하게 반복한 경우를 일컫는다.

elus = elusive (알기 어려운) 이독(異讀)의 동기(動機)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 이 용어로 표시하였다.

em scr = emendation of the scribes (서기관들의 수정)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티쿠네 쏘프림(Tiqqune Sopherim)” (아래 정의를 볼 것) 목록에 들어 있거나 안 들어 있거나, 서기관들의 수정이 분명한 경우를 일컫는다. “theol”(아래에서 볼 수 있는)의 경우를 참고하라.

emph = giving emphasis (강조) 이것은 본문 변화의 결과를 기술하는 것이다. 어떤 표현을 강조하기 위하여 필사자나 번역자가 변경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읽기를 가리킨다.

err = error (오류) 고대의 필사자나 번역자에게서 기인된 오류라고 판단되는 것을 일컫는다.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err-chron (연대의 오류)

err-georg (지리의 오류)

err-gram (문법의 오류)

err-graph (자음본문 기록의 오류)

err-hist (역사적인 것과 관련된 오류)

err-lex (사전적 의미의 오류)

err-phonol (음운의 오류)

err-synt (구문의 오류)

euphem = euphemism (완곡법[婉曲法]) 이것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 곧 독자나 청중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표현을,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누구나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exeg = exegesis (주석) 이것은 사본의 복사 과정에서 주어진 어떤 낱말이나 표현의 의미를 발전시키려고 할 때 첨가된, 혹은 변경된 요소를 반영한다. 여기에서 “exeg”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euphem (완곡법)”, “interp (해석)”, “midr (미드라쉬)”, “narr (이야기)”, “theol (신학적 동기)”, “ideol (이념적 동기)” 등은 바로 이 “exeg (주석)” 의 범주를 더 세분한 것이다.

explic = making implicit information explicit (함축의미명시[含蓄意味明

示]) 이것은 본문에 새로운 정보를 첨가한 것이 아니라, 다만 본문 안에 함축된 의미를 겉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해석 (interp)”(아래 정의를 볼 것)과는 다른 것이다.

facil = facilitation (쉽게 하기) 난해구나 어색한 본문을 쉽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본문의 간편화로서, “조화(調和 harmonization)”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조화는 필사자나 번역자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본문을 서로 일치시켜보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하여, “쉽게 하기”라는 분류는, 난해한 본문, 혹은 어색한 본문, 해결할 수 없는 쟁점을 지닌 본문, 말하자면, 일종의 “거친 본문”이 “매끄럽게” 윤색(潤色)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단순히 “facil (쉽게 하기)”로 표시되기도 하고, 고대의 독자, 필사자, 번역자들에게 난해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본문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되어 표시되기도 한다.

facil-gram (문법 쉽게 하기)

facil-lex (어휘 쉽게 하기)

facil-seman (의미 쉽게 하기)

facil-styl (문체 쉽게 하기)

facil-synt (구문 쉽게 하기)

gloss (행간이나 난 외의 어구주석) 이것은 삽입의 결과로 생긴 본문을 일컫는다. 본래 행간(行間)이나 난외(欄外)에 있던 짧은 설명이 본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hapl = haplography (중자탈락[重字脫落]) 이것은, 유사한 글자나 연속된 글자 혹은 낱말이 우연히 삭제됨으로써 생긴 본문이라고 판단된 것을 일컫는다.

harm = harmonization (조화) 이 용어는, 증거 본문의 읽기를 발생시킨 특수한 힘이 본문을 어떤 외부적 참조 구조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읽게 만드는 추진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읽기가 이들 다른 자료들처럼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문제의 읽기가 다른 관련 본문들과 어떤 모로든지 본래는 일치되는 것이 아니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런 종류의 본문들은, 유사본문을 반드시 똑 같게 만들려는 의도보다는, 다만 일관성(consistency)을 이루려는 방편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본문에 따라서는 단순히 “harm (조화)”라고 표시되는 것도 있고, 조화의 구

체적인 참조 구조 (즉, 다른 본문과의 조화, 문맥과의 조화 등), 조화되는 본문의 국면 (구문, 문체, 연대 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표시되기도 한다. (“facil [쉽게 하기]”도 볼 것)

harm-[reference] 특수 본문과의 조화 (참고 구절 제시)

harm-chron (연대 조화)

harm-ctext (문맥 조화)

harm-styl (문체 조화)

harm-synct (구문 조화)

homarc = homoioarcton (유사문두[類似文頭] 탈락) 이것은, 한 문단 안에 같은 낱말로 시작되는 구나 절이나 행이 들어 있을 때, 필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실수로 잘못 읽어서, 같은 두 낱말 사이의 본문이 삭제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homtel = homoioteleuton (유사문미[類似文尾] 탈락) 이것은, 한 문단 안에 같은 낱말로 시작되는 구나 절이나 행이 들어 있을 때, 필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실수로 잘못 읽어서, 같은 두 낱말 사이의 본문이 삭제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ideol = ideologically motivated (이념적 동기) 이것은, 특수한 이념적 전망에 일치시키려는 의도에서 조정된 본문을 일컫는다. 그 동기가 반드시 신학적이거나 할 것까지는 없다하더라도 어떤 이념이 반영된 변화를 일컫는다.

ign = ignorance (무지) 이것은, 문제 본문의 발생 기원이 필사자나 번역자의 무지에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일컫는다. 필사자나 번역자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대본 (Vorlage)에 대한 이해의 부족 혹은 자료의 부족 때문에, 그 대본을 잘못 읽음으로써 이독이 생겨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err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생긴 본문을 가리키는 데 반하여, “ign (무지)”는 본문 전달자의 지식의 결핍을 강조한다. 지식 결핍의 경우도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ign-cultur (문화적 배경에 관한 무지)

ign-georg (지리적 배경에 관한 무지)

ign-gram (문법적 지식에 관한 무지)

ign-lex (사전적 의미에 관한 무지)

implic = making explicit information implicit (함축) 이것은 본문에서 기존

의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겉으로 드러난 표현을 속으로 감추는 것일 뿐이다. 정보를 함축시켜 보관한다.

indet = indeterminate (불확정한) 이것은, 인용된 증거 본문이 문제되는 본문의 특별한 난점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정관사의 유무와 관련하여 라틴어 역본들, 동사 형태의 남성형과 여성형이 논란이 될 때 라틴어나 그리스어 번역본들)

insuff = insufficient (불충분한) 이것은, 한 사본이 파손되어 그 본문을 읽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인용된 본문이 확신을 줄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할 경우를 일컫는다. 이것은, 사본의 품질을 첨자(添字)로 표시한 “frag (단편)”(=fragmentary)와는 구별된다. “frag”의 경우는, 본문이 비록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지 않고 단편적이긴 하더라도, 그 부분적인 조각이 본래 본문의 조각이기 때문에 전과되지 않은 완전 본문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는 점에 있어서 “insuff”와는 다르다.

interp = interpretation (해석) 이것은,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본문에 본래부터 의미가 좀 모호한 말이 있는 경우, 고대의 사본들 중에서 그러한 모호문에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 있음을 말하여 준다. 여기서 말하는 모호성이란 반드시 난해구나 어색한 본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문에서부터 명확한 의미를 얻는 문제, 곧 기본적인 이해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interp (해석)”은 “facil (쉽게 하기)”와는 구별이 된다. “interp (해석)”은 (위에 제시된) “explic (함축의미명시[含蓄意味明示])”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두 용어 “interp”와 “explic”는 모두 함축된 의미를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을 뜻한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explic”는 밖으로 드러낼 함축된 의미가 필사자에게나 번역자에게 분명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반하여, “interp”의 경우는 고대의 필사자나 번역자가 모호한 본문에 대하여 어떤 의미 결정을 해야 하는, 의미의 모호성이 전제되어 있다.

interpol = interpolation (삽입) 이것은, 다른 자료나 같은 자료의 다른 곳에서 온 어떤 본문 문제와 관련된 본문이 삽입됨으로써 발생한 읽기를 성격규명한 것이다.

irrel = irrelevant (무관한) 이 용어는 한 특정한 증거의 읽기가 고려하고 있는

해당 문제에 부관한 것임을 표시한다.

lib = liberty (자유) 이 성격규명은 문제의 읽기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이 원천 본문에, 혹은 원천 본문과 광범위한 문맥의 상호작용에, 혹은 한 번역본의 수용언어의 요구에 있다기보다는, 필사자나 번역자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제안한다. “Lib”는 그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의 “의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이 의도성이 필사자나 번역자를 제외한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 그리고 그 읽기 배후의 의도가 더 이상 달리 상술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Lib”는 홀로 나타나거나, 더욱 상세한 진술과 함께 나타나서 그러한 자유가 행사된 언어학적 측면을 밝힌다.

lib-seman 의미론과 관련된 자유스런 변화

lib-synt 구문론과 관련된 자유스런 변화

lit = literary (문학) 이 용어는 한 읽기가 분리된 문학 전통을 대표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리된 문학 전통이란 어느 한 책이 둘 혹은 그 이상의 여러 판으로 나왔을 경우 그 중 하나를 마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된 문학 전통은 절대로 다른 증거 본문에 반영된 다른 문학 전통 곧 다른 계통이 다른 편집본의 본문을 교정하는 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사무엘기와 예레미야서가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많이 제시한다.

metath = metathesis (낱말 안의 글자 자리 바꾸기) 이 용어는 한 읽기가 한 낱말 안에서 글자의 치환 때문에 발생한 경우 그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의 동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러한 치환은 의도적인 변경이라기보다는 우연한 변경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Metath”는 한 낱말을 구성하는 여러 글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위치 변경으로서, 문장 안에서 낱말들 사이의 위치 변경을 일컫는 “transp (글월 안의 낱말 자리 바꾸기)” (아래)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midr = midrash (미드라쉬) 이 용어는 그 읽기가 외부의 미드라쉬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제안한다.

modern = modernization (현대화) 이 용어는 한 읽기가 번역자나 필사자 때에 지배적이던 사전상의 혹은 문법상의 용법에 동화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성격규명을 하는 것이다.

narr = narrative (이야기) 이 용어는 그 읽기가 이야기의 구조나 기법에 순응하느라고 이야기를 조정하는 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성격규명을 하는 것이다.

om = omission (부재[不在] parablepsis) 이 용어는 필사자나 번역자가 본문의 어떤 부분을 우연히 빠뜨리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생겨난 본문이 부재를 가리킨다.

paraphr = paraphrase (바꾸어 말하기) 이 용어는 한 읽기를 같은 뜻의 다른 형태로 다시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rest = restoration (회복) 이 용어는 한 증거 본문이 한 번역의 대본(*Vorlage*)이었던 전와(轉訛)된 본문의 회복을 시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가리킨다.

shift = shift of meaning (의미 이동) 이 용어는 한 번역이 본문의 주요 구성요소를 다시 씀으로써 본문 전체에 새로운 의미를 주려고 했다고 판단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본문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판단되는 것을 가리킨다.

spont = spontaneous (자발적) 이 용어는 독립된 증거 본문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특수 이독이 실제로는 이러한 증거본문들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가리킨다.

substit = substitution (대치) 이 용어는 한 본문 안에 있는 낱말이나 낱말들을 필사자나 번역자가 임의로 다른 낱말이나 낱말들로 대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대치의 배경이 되는 동기는 상술하지 않았다.

syst = systematization (체계화) 이 용어는 문제가 되는 읽기가 필사자나 번역자가 어떤 본문을 필사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본문을 통일된 문학적 구조로 제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가리킨다.

theol = theologically motivated (신학적 동기) 이 용어는 문제의 읽기가 신학적 규범에 맞추기 위하여 조정된 읽기임을 말해 준다. (다음에 제시된) “tiq

soph (티쿤 쏘프림)"와 (위에 제시된) "em scr (서기관의 수정)"도 유의해 보라.

tiq soph = Tiqqun Sopherim (티쿤 쏘프림: 서기관의 수정) 이것은, 문제의 본문이 실제로 서기관의 수정이라고 판단되든 안 되든, 서기관들이 성서의 본문을 수정해 놓은 것이라고 하여, 전해져 오는 목록 안에 올라 있는 본문을 일컫는다. 위에 제시된 "theol (신학적 동기)"를 유의해 보라.

transcr = transcription (유사 음) 이 용어는 번역본문의 읽기가 번역 대본의 번역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번역 대본의 구어 형태를 (소리나는 대로), 수용언어의 음성학적 체계에 따라, 재생시킨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가리킨다.

transl = translational adjustment (번역상의 조정) 이 읽기의 성격규명은 수용언어가 제공하는 속박과 기회의 역할을 주목하여 보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이러한 국면들이 필연적으로 원천 본문과 원천 언어의 특성을 번역하는 방법을 주목하여 보도록 한다.

translit = transliteration (음역) 이 용어는 번역본문의 읽기가 번역대본의 번역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번역 대본의 기록 형태를 (곧, 철자를), 글자 대 글자 대응 관계에 입각하여, 재생시킨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결과적인 번역 형태가 대본의 소리를 흉내내었는지, 혹은 그것이 수용언어에서 철자법상 "이상하게" 여겨지는지 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transp = transposition (글월 안의 낱말 자리 바꾸기) 이 용어는 한 읽기가 한 본문 안에서 자리를 서로 바꾼 두 낱말 혹은 낱말 모음에서 생겨난 읽기의 경우 그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리 바꾸기 동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러한 자리 바꿈은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Transp"는 낱말들 사이의 자리바꿈을 일컫는 것으로서, 낱말을 구성하는 여러 글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위치 변경을 일컫는 "metath (낱말 안의 글자 자리 바꾸기)"와는 구별된다 (위의 "metath"를 보라).

via 이 용어는 특수한 기존 읽기의 자극제 구실을 한 것으로 판단된 히브리어 형태를 표시한다. 한 형태를 그렇게 표시함에 있어서, 그 읽기가 실제로 대본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던 것이었는지 (실제 대본), 아니면 다만 필사자나 번역자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읽은 것이었는지 (허상 대본)에 대한 입장은 취하지 않았다.

via √ 이 용어는 표시한다. 특수한 기존 읽기의 자극제 구실을 한 것으로 판단된 히브리어 히브리어의 “어근”을 표시한다. 여기에서는 어근을, 필사자나 번역자가 그들의 대본을 이해하였던 방법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해석학적 열쇠 구실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소마소리에 사용된 용어 해설

알레프('alef)로 시작되는 낱말, 알레프('alef) 글자, 아트낙('atnah) 역양	א
하나, 한 번	א'
알파벳, 알파벳 순서, 시 119	א"ב, אלפא בית
낱말의 첫 두 글자가 알파벳의 순서를 따른다	א' ב' ב' ג' ג' ד'
하나님 이름 네 글자	ארכר, ארכרה (=הזכרה)
「오경(五經)」	או אור, אורי, אורייתא
글자, 글자들	אות, אותיות
위 첨자	אות תלויות
다른	אחרי'
대명사 “그들”	אינון
이다, 있다	אית
거기에 있다	אית בהון
여자	אית=איתתא
안에, 가운데에, (낱말이나 절) 안에	אמ', אמצע, אמצעא
(시 형식으로 편집된 세 책) 「욥기」, 「잠언」, 「시편」	אמ"ת
구약전서	א"גך
남자 이름	גברא אנש, בר נש, שום בר נש, שם
여자 이름	אנת, אנתתא, אתת, אתתא
아트낙('atnah)과 쏘프 파쭈크(sop pasuk)	א"סך, אתנ וסופ פסו
한 절이 씨만(siman)이다	אפ"ס
아랍어	ארמ
글자, 글자들	את, אתא, אתין
아트낙('atnah)	אתנ, אתנת, אתנתתא
여자 이름	אתת, אתתא
하나 (둘 ...)을 제외하고	ב'מ'א (...), בר מן א' (...)
그것들 안에	בהון
그것 안에	ביה
그것들 사이에	ביניה, ביניהון
「창세기」	ברא, בראשית
남자	ברנש, בר נש
후에, 뒤에	בתר, בתרא

남자 이름	גבר, גברא
가야(<i>ga'ya</i>)	געני, געיא, גיעיה
게레쉬(<i>geresh</i>)	גרש, גריש
「역대기」	רב חי, רב ים, ר"ה
후에, 뒤에	דבתור, (ד)בתריה
다게쉬(<i>dagesh</i>)	דגש, דיג, דיגשא
이 것	דין
같은, 이것과 같은, 이것들과 같은	דכ, דכו, דכות, דכותיה, דכותהון
남성	דכר
불완전	דלוג
유사(類似)	דמיין
열 다섯 (15)	ה
이것들	הלין
힐렐 코텍스	הללי
여기	הכא
바브(와우 <i>waw</i>) 전접(前接) 낱말	וא
그리고 다른	וא'
그리고 하나	וא
바브(와우 <i>waw</i>)	ואו
「민수기」	וידבר
한 쌍, 쌍들	זוג, זוגין
남성	זכר
소(문자[들])	זעיר, זעירא, זעירין
자케프(<i>zakef</i>)	זק, זקפ, זקה, זקפא
자르카(<i>zarka</i>)	זרק, זרקא
짝, 짝의 한 쌍	חב, חבי, וחב, חברו, וחברו
하나, 한 번	חד, חדה, חדא
... 가운데 하나, ... 가운데서 독특한 것	חד מן
일반적인 (세속적인)	חול
「오경(五經)」	חומש
가야(<i>ga'ya</i>)가 없는 (즉 짧은)	חטף
차이, 변화	חלוף, חילופ, חילוף
불완전한, 불완전하게 기록된	חס, חסי, חסיר, ח, חסר
이중 불완전	חס וחס

가운데, 절반	חצי
억양, 억양과 함께	טע, טעם, בטע, בטעמא
한 번	יחד
일반적이 아닌	יחיד, מיחד, מיוחד, יחידאין, מיחדין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יי, ייי, יה
「여호수아기」, 「사사기」, 「시편」	י' ש' ת'
여분의	יתר, יתיר, יתירין
여기	כה, כאן
닮음, 유사	כות, כותהון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כ"כ, כתיב כן, כן כתיב
모두	כל, כ"ל, כול
기록된 것	כת, כתיב, כתוב, כתיבא, כתבן
성문서(聖文書)	כתי, כתו, כתיב, כתיבין, כתוביא
독특한, 유일한	ל, לית, ליתא
러가메(<i>logarme</i>)	לג, לגר, לגרמ, לגרמיה
형식, 의미, 언어, 성(性)	ליש, לישג, בליש, בלישנא, לשון
위에	לעיל
아래에	לרע
바뀐, 뒤에 놓인	מאוחר
메러카(<i>meraka</i>)	מארק, מארכא, מאריכון
에스더기 두루마리	מג, מגלה
동부(東部)	מדג, מדנח, למד, למדג, מדנחאי
옳은 본문, 교정된 본문	מוג, סלפ מוג, ספר מוגא
중복된, 반복된	מוכפ, מוכפל
앞에 놓을 것	מוקדם
이문(異文), 이문들	מחליפ, מחל, מחלפ, מחלפין
오해되다	מטע, מטעין, דמטע
보통이 아닌	מיחד, מיוחד, מיחדין
날말, 날말들	מילה, מלה, מילין, מלין
수(數)	מינין
그것들 한가운데	מיסיחון
완전표기	מל, מ"ל, מלא
두 번 나오는 완전 표기	מל דמל, מ"ל דמ"ל, מלא דמלא
밀엘(<i>mil'el</i>), 전종음절(前終音節)에 억양	מלע, מלעיל

밀라(<i>milra</i>), 종음절(終音節)에 억양	מלרע, מלר
그것들 가운데, 그것들로부터	מנה, מנהון
(‘עט’) 음악적 의미	מנוגן
모음부호를 붙인, 발음된	מנוקד, מנוקדין
끝 마소라 (<i>Masorah finalis</i>)	מס' רבתא
서부(西部)	מע, מער, מערבאי
절 중간(節中間)	מ"ק, מצע פסוק
마픽(<i>mappik</i>), 낱말 끝에 붙은 ‘헤(<i>he</i>)’를 발음한다	מפ, מפיק, מפיקין
안에	מצ', מצעא, מיצעא, מציעא
소(小)마소라	מ'ק
「신명기」	מ"ת, משנה תורה
다른	משני, משנין
「열왕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열두예언서」	מ'ש'ר'ת
같은	מתא, מתאימין, מתאמין
다른, 이독(異讀)	מתח, מתחלפ, מתחלפין
낱말 가운데	מ"ת, מצע תיבותא
다른 본문	נ"א, נוסחא אחרינא, נוסח אחר
「예언서」	נב, נביא, נביי, נבי, נביאי
(‘עט’) 음악적 의미	נגן
크게 쓴 눈(<i>nun</i>)	נון רבתי
보통 크기로 쓴 눈(<i>nun</i>)	נון זעיר
「예언서」와 「성문서」	נ"ך
함께, 첨가되어 포함된	נסיב, נסיב, נסיבין, נסבה, נסבא
점(點)	נקוד, נקודות
여성	נקיבה
세테르(<i>seder</i>), 성구집(聖句集)	ס
다른 책, 다른 책들	ס"א, ספרין אחריין
추측하여 읽은 것 (본문 안에 넣지 말 것)	סביר, סביר, סבירין
기억을 돕는 표시, 참조	סי, סימ, סימן, סימנהון
책	סיפ, סיפרא
끝	סיפא
합계	סכום
연관된, 앞에 붙은, 뒤에 붙은, 결합된	סמיכ, סמיד, סמיכין
쏘프 파쭈크(<i>sof pasuq</i>), 절의 끝	ס'פ, ס"פ, סופ פס, סופ פסוק

날말의 끝	סת, סוף תיבותא, סופי תיבותא
문맥, 문단	עינ, עינינ, ענינא
끝에	עקב, ערבא
차이, 구분, (의견의) 불일치	פלג, פולג, פלוג, פלוגתא, פלגתא
어떤 이	פלוני
절(節)	פס, פס, פסוק
파세크(paseq)	פס, פסק, פסיק, פסיקתא
파라샤(parasha), 성구집(聖句集)	פרש, פרשה
파탁흐(pataḥ)	פת, פטח, פתחין
세골(segol)	פת קטן
커레(qere)	ק, קר, קרי, קריין
첫째	קד, קדמ, קדמא, קדמיה
거룩한, 거룩한 언어(곧 히브리어)	קדש, לשון קדש
카메츠(qameṣ)	קמ, קמצ
세레(šere)	קמצ קטן
벗어진 (전접사[前接詞] 바브 waw가 없는)	קרחי
성서	קריא, קרי
곳 이름	קריח, קרתא
시작	ר, ראש
절(節)의 시작	ר"פ, רא פס
날말의 시작	ראש תיבותא
큰	רב, רבת, רבתי
복수(複數)	רבים, לשון רבים
레쉬(reshi), 시작	ריש
라페(rafe)(dagesh가 없는, 침묵후두[沈默喉頭]가 없는)	רפ, רפי, רפה, רפין
나머지, 다른 것들	שא, שאר, שארא
(사람) 이름, 이름들	שום, שם, שמא, שמו' שמוא'
명단, 목록	שיטה, שטה
(날말, 절, ...) 다음의 것	שלא, שלאח, שלאחריו
「사무엘기」	שמו, שמוא
토라(Torah)	ת, תו, תור
날말	תיב, תיבו, תיבות, תיבותא
「레위기」	ת"כ, תורת כוהנין
둘째	תינ'

첨자(添字)	תלוי
「시편」	תלים, תלין
셋, 세골(segol)	תלת
둘째	תנינא
구약성서	תנ"ך
둘째	תור, תלי, תרתני, תריין, תרתין
「열두 예언서」	תע, תר עש, תרי עשר
두 뜻	תור לשונ
타르굼	תרג, תרגום